



### 의대 미주동창회

## ‘34차 Annual Medical Convention’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주관 34차 Annual Medical Convention이 March 1-5 2017 Pacific Palms Resort, City of Industry, California, USA에서 있었다. 130명의 미주 회원과 15명의 한국회원을 포함하여 배우자를 합하여 총 250 명의 참가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견일(62년 입학) 회장과 변영석, 김성환, 최철, 김명원, 신홍식, 송창호, 홍광신, 윤병인, 이현령 등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의 노력으로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모교 강대희 의과대학장, 흥정용 서울의대 동창회장,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 박중신 부학장이 참석했고 Keynote 강사로 석학 조승열 교수가 초청되었고 내과학 이홍규 교수, 천문학과 홍승수 교수, 암전문으로 명성이 있는 김의신, 분당병원 외국인 진료부장 조중행, 오케스트라에 대한 명강의를 한 다니엘 석 음악가, 박승균 교수, 온기철 박사, 최도빈 철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CME와 Non-CME program 강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울러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있어서 행사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골프대회, 관광 등이 전후로 이루어졌고 3, 4일에는 만찬과 회의와 여행을 함께 했

으며 백승원(72년 입학) 박사의 명사회로 진행되었다. 노규상 부부, 백승원 부부의 볼룸댄스는 모두의 인기를 끌었다. 조승열 교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회장과 의학 전문지의 편집장)의 한국의학 연구기금과 기초의학 연구환경의 실체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의학연구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가 쓰게된 Oxford Medical Textbook 의 Parasitology Chapter에 올린 Cerebral Sparganosis 에 대한 역학, 진단, 치료에 대한 강의가 흥미로웠다. 뱀을 잡아먹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질병은 놀랍게도 많은 한국사람들에게 있으며 특히 공수대 병사들, 약으로 뱀을 먹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 병은 피부에 종양으로도 나타나지만 뇌에까지 침범하면 뇌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지난 50년간 문헌과 그의 임상경험담을 알려주었다.

이와같이 이번행사에 음악, 문학, 미술,

과학, 철학 모든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여러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예술방면에 중점을 둔 회장단의 의도인 것도 성공적이었다. 한승신, 신규호, 이현령, 정영태 동문들이 주관한 Scientific CME program도 ‘New Horizons in Medicine’ 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서 Person-

alized Medicine, Imaging in Modern Medicine and Regenerative Medicine/ Stem Cell Research 등 세 분야를 다루었다.

현재 미주에 거주하는 서울의대 동문은 아직도 1200명이 있지만 많은 분이 현지에서 은퇴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 동문 중 주로 학계와 현직에 종사하는 젊은 동문들이 이 CME Program에 흥미를 갖고 참여했다. Credit Hour는 신규호 동문의 수고로 University of Buffalo, School of Medicine 에서 담당했다. 지난 34년간 미주의대 동창회는 매 해 열렸으며 작년에는 서윤석 전회장 주관으로 Washington DC,

Virginia에 있었고 내년에는 한승신 차기 회장에 의하여 Glenponte Marriott Hotel at Teaneck, New Jersey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 외에도 우리 서울의대 미주동창회가 1974년부터 발행하는 한글 신문인 ‘시계탑’은 역사적으로 미주한국일보에 이어 미국에서는 둘째로 오래된 한글 신문임을 자랑한다. 또 이 Medical Scientific Convention 또한 지난 반세기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 임상분야에는 물론 기초연구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을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행사 중에 강대희 서울의대학장은 금년도 미주함춘공로상 수상자로 노용면(55년 졸업, 전 시계탑 편집장, 10대 회장), 이희경(61년 졸업, 전 시계탑 편집장, 22대 회장), 정정수(62년 졸업, 31대 회장, 유모어 전문가), 이 세 동문들을 선정해 상패를 전달했다. 이 상은 해마다 1명 내지 3명의 미주동창회에 공헌한 훌륭한 동문들에게 수여된다. 기사내용과 사진(10면)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글: 서윤석(의대 62) 시계탑 편집인)

### ‘4박 5일 250명 참가 성황리에 열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   |  |
|---|--|
| 1 34차 의대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 11 임천빈 앨리스 아일랜드 상수상/최경은 첼로독주회/정서영 개인전        |
| 2 김월화:말의 형성적 힘/김병연: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자     | 12 정계훈:나누고 싶습니다.                             |
| 3 백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정태영: 허버드 역사학과 선인   | 13 그대들이시어/허유선:한국방문과 미주동창회/강신용 출판기념회          |
| 4 김인수:대한민국 국민은 亡國之民(Ruined people)인가? / | 14 제 26차 미주동창회 평의원의회의 준비에 박차                 |
| 5 김현기:트럼프 대북 3원칙, 6차회담 없이 중국 압박해 북 비핵화  | 15 14-15특집:아.정춘-송윤정/김욱영/김순주/이형렬              |
| 6 제11회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개최            | 16-17지부소개:워싱턴주                               |
| 7 모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생 선정              | 18 워싱턴주 시니어포럼/최은관: 러시아의 이콘화와 서양화(하)          |
| 8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장학금 수여/책가장 많은 모교 도서관.../   | 19 지재원:새집/김수영:어느 노교수의 파안대소/원고모집              |
| 9 모교 약대, 미국 임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 20 건강/박평일:미움이 운유한 자들/이중호: 인간의 본질을 궁구...      |
| 10 워싱턴 DC 동창회 이사회/뉴욕 끝내클럽 신년교례회/        | 21 심화진:Princeton Record Exchange/정유석:그로스 클리닉 |
| 11 남가주 상임이사 골프모임                        | 22 김태준: 코메리칸의 부모님전상서 출판/이석효:천사가 그린 벽화        |
| 12 시카고 동창회 1차 임원회&이사회/신응남: 허버드 클럽       | 23 사회영미-나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
| 13 시애틀은 뇌과학 중심지/시카고 과기협 수학, 과학 경시대회 개최  | 24 수필:한정민-길에게 길을 물으며 길다/미술:김광현               |
| 14 이내원,이순신 국제학술대회 발제자로 초청/탁원순 자원봉사      | 25 건강:커피와 골다공증/영화:이수영-고아의 유령/프리임의 법칙         |
| 15 의대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이모저모                   | 26 이달의 사진:박은숙/편집후기                           |





김철희(인문 86)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황은 황하와 장강 일대를 동시에 장악, 중국 최초로 통일 대제국을 이룬 군주였다. 그는 이를 온전히 기리기 위해 자신을 ‘시황’, 그러니까 ‘첫[始] 황제[皇]’라고 칭하러 했다. ‘진 제국 최초의 황제’라는 뜻의 진시황이란 표현은 그렇게 생성됐다.

진시황 이전, 황(皇)과 제(帝)는 모두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인 군주는 왕이라 불렀다. 진시황은, 자신이 건설한 나라가 새로운 차원의 나라임을 표방하고자 신에게 쓰는 호칭으로 자기를 칭하게 했던 것이다. 신생 국가가 이전 나라와는 ‘급’이 다른, 곧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임을 온 천하에 알리자는 취지였다.

그러곤 제국이 자손만대까지 존속돼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자신을 ‘첫 황제’로 부르게 했다. 또 아들은 ‘두 번째 황제[二世]’로, 손자는 ‘세 번째 황제[三世]’로 칭하게 했다. 환공, 진공 같이 시호를 사용하던 전통을 깨고 새로운 표현을 개발한 후 거기에 제위가 만세[萬世] 후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욕망을 담아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급의 군주임을 만백성에게 각인하고자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통제하기도 했다. 황제가 스스로를 칭하는 집(朕)과 황제의 거처를 뜻하는 궁(宮)이 대표적 예다. 진시황이 그렇게 독점하기 전, 집과 궁은 자신과 자기 거처를 가리킬 때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었다. 이들이 황제 전용으로 제한됨으로써 사람들이 ‘나’나 우리 ‘집’을 가리키며 집이나 궁을 쓰게 되면 본의 아니게 반역에 준하는 불경죄를 범한 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황제의 신성한 힘과 권위는 그렇게 말을 매개로 일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내면화된다.

이는, 진시황이 말을 이용하여 제국과 황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현실에 착근해 갔음을 일러준다. 신문, 잡지사 방

## 말의 ‘형성적’ 힘

송, 의부교육기관 같이 국가이념을 방방곡곡에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에도, 말의 힘에 의지하여 제국이란 체제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구동되게끔 했다는 뜻이다.

2천 년도 더 된 중국 얘기를 하는 까닭은, 말의 힘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또 거기서나 여기서나 동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그 힘은 ‘빛이 있오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성경)와 같은, 어떤 주술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사회가 형성되는 데에 실제적으로 개입된 사회적 힘이다. 이를테면 영어나 독어 등의 ‘국어’가, 곧 근대화된 말이 국민(nation)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주인인 국민국가가 주도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말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늘 뭉가를 빚어내는 ‘형성적 힘’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말의 형성적 힘은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 최초의 사건에서도 유감없이 목도된다. 전혀법 돌이나 화염병 등을 들지 않았어도 위대한 진보를 일궈낼 수 있었던 까닭은 시민의 응집된 목소리 덕분이었다. 삶터와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된 시민의 말이 철용성이었던 재벌 총수를

구속하고 부정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음이다.

이젠 그 말 속에 알일이 밝혀 있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공정하고 행복한 삶과 사회의 건설이란 지향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것이 우리 사회 지고지존의 가치로 재천명된 헌법 수호란 당위를 구현하는 길이다. 상해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비롯하여 주권재민, 법치주의, 평화통일, 경제민주화, 행복한 삶의 실현 등등, 헌법에 담긴 말들의 형성적 힘이 개인과 국가사회 모두의 차원에서 온전히 구동될 때 비로소 헌법 수호란 당위가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수저’ 종류와 무관하게 저마다의 말이 존중돼야 한다. 다만 어설픔게 조화를 꾀하지는 말자. 광장을 가득 메운 목소리가 결코 단일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실현이란 큰 목표 아래 평화롭게 병존했듯이, 다양한 목소리의 평등한 공존을 도모하자는 얘기다. 곧 민주적 제 질서의 확립과 공공선의 진보, 성숙한 인문사회의 건설, 평화체제의 구축 같은 큰 목표는 공유하되, 그 안에서 상호 다름이 공존하는 양태를 실현하자는 제언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업이다. 나와 많이 다르고 적지기도 한 목소리를 내 목소리와 대등하게 수용하는 건 사실 꽤나 어려운 일이다. 하여 자라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연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은 그러한 스스로의 훈련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 언론도, 종교도 마찬가지다. 지식인, 정치인 등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시민이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따름이어야지, 그들을 주도하거나 인도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헌법수호로 표방된 ‘가치 있는 말’들의 형성적 힘이 법적, 제도적 차원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일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중앙중문과 교수, 한국일보 3월 14일 자 <김철희 칼럼>에 게재됐던 글입니다.)

주민에게 자본주의를 학습할 기회도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거나 핵 개발을 막는 데는 무력했다. 교류를 늘리지만 하면 독재자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이 햇볕정책의 기초라던 이 순진함은 당장 버려야 한다. 북핵 문제에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무조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학습 부족과 이념적 도그마를 드러낼 뿐이다.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햇볕정책의 방향으로 가되 그 정책 수단은 진화·다변화·정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보수 정부가 물려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비유컨대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망원경으로서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목적지와 거기로 가는 길을 확인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시장제도를 기초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북한 주민과 경제가 변하면 통치체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내암을 건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실의 냉철한 분석과 대처를 위해 현미경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이는 “사자처럼 맹렬히 들어가 제비처럼 신속히 나오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제재는 5·24 조치와 달리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마저 실패하면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급증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도 지속해야 한다. 이번에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지원 신청을 통일부가 승인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한국이 인도적 위기에 부합시킨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태도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건강해야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동시에 북한에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점에서는 추후 경제협력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우회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통일은 로도가 아니다. 망원경을 가진 진보와 현미경을 가진 보수가 함께 전심으로 협력해야 찾아오는 선물이다.

모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백순(법대 58)

21세기의 초반을 지나가면서 세계 경제계와 정치계에서는 희망적이 아닌 낙관적인 생각들이 제창되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시대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겪으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세계의 빈곤이 놀라운 속도로 감소되고 압박과 독재가 크게 줄어들어가는 인류역사의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서양에서 출발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화 확산이 가져 온 결실이라 해도 그리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인류에게 번영과 자유를 결과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특히 2016년을 지나고 2017년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부딪치고 있다는 주장들이 논란되고 있다.

**먼저 자본주의의 위기론을 알아 보자.**

**첫째,** 자본주의 자체가 어찌할 수 없이 조래하게 되는 경제문제가 자본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 현대 선진 경제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경제문제는 (1) 저성장, (2) 생산력 감퇴, (3) 노령인구, (4) 부의 소수계층화 등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경제들이 1~2%의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 하바드 역사학과의 선언

## “우리에게겐 외교정책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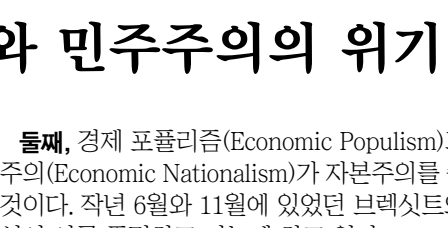
정태영(문리 71)

하바드 역사학과 교수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선언했다. “하바드에는 외교정책(Harvard has no foreign policy)이 없습니다.” 라고 국제정치학을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중국 역사를 강의하기에 앞서 모두 형식으로 강좌에 참여한 세 교수의 좌담 자리였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의견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We don't agree on one).”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덧붙여 “이 강좌는 미국에서 중국을 알기 위해 배우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강좌 이름은 ‘ChinaX’로 중국 역사와 문명에 대한 한 학기 오픈 강좌이다. 그들의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들 교수의 스스로의 소개를 보니 그 중 한 명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하바드대학의 페어뱅크 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그 문하생이었다고 말했다. 페어뱅크는 내가 1971년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동양사학과 교수가 소개한 일종의 기본 텍스트 저자였다. (사실 기본 텍스트는 없었다. 수 많은 참고 문헌 중 하나이었을 뿐이었다). 당시엔 중국사에 대한 한국내 연구가 미흡하여 마땅한 기본서가 없었다. 교수는 그 책을 소개한 이유로 “국내 학자에 쓰여진 마땅한 책이 없는데, 미국에서 쓰여진 이책이 비교적 객관적이어서 이것을 소개한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혁명기에 로베스피에르가 실패한 것은 너무 통일(unity)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그 ‘통일’, 이 견을 옹납하지 않는 그 ‘일치된 의견’ 때문에 수천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게 갔다. 가난한 자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가. 그는 공포정치의 대명사



**둘째,** 경제 포퓰리즘(Economic Populism)과 경제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자본주의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작년 6월과 11월에 있었던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이 이를 증명하고 가능케 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 자체에서 생성된 반자본주의 세력들의 확산이다. 이 세력들은 경제발전의 분배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증대와 경제규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지출이 1938년 뉴딜 정책으로 GDP의 5분의 1이었던 것이 근래 38%로 폭증했으며 이터리는

51%, 프랑스는 57%로, 이렇듯 계속 늘어나는 큰 정부와 강화되고 있는 경제규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업의 활성화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다음 민주주의의 위기론을 살펴 보자.**

하나,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역기능이 민주주의에 위기를 불러 오고 있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의 주장대로 시민들이 매일매일의 순간적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나 복지혜택 등 단기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의정치는 국가파탄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 일시적인 옳은 일과 단순한 상식을 선호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동이나 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는 현상이 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한국의 탄핵정국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 더 나아가 극우의 권위적인 정치가 민주국가에서 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유럽에 극우정당의 발전, 동구에 권위주의적 정치의 시행, 세계 각처에 중도좌파 및 중도 우파 정당의 쇠퇴 등 정치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I alone can fit it)고 토로한 것은 그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가오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2017년,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리라.



김병연(사회 85)

##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자

우리는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각각 10여 년씩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볼 때 이들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효과를 거두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부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변했던 데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변 열강의 외교적 갈등에 휩쓸릴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대북정책은 지극히 이념화되어 남북갈등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됐다. 풀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문제는 언젠가 폭발해 한반도를 위기로 내몰지도 모른다.

차기 정부에서도 분열적 대북정책을 펴면 또 실패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토대 위에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의 공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수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보다 비핵화를 더 중시해 왔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이나 그랜드 바겐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0년 시작된 5·24 조치도 북한에 충격을 주지 못한 채 한국은 핵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1~2014년 동안 북한 경제는 오히려 연평균 1.1% 성장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여론을 의식해 당위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체가 무리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학습해야 했다. 정부 초기가 기회였다. 그때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와 더불어 사회 개방이 촉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

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적거렸다. 그러다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중국에 넘어가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은 대북정책의 외통수다. 자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지시키려는 미국은 북한에 대규모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인이 ‘이슬람국가(IS)’



와 견줄 만큼 북한을 위협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전 햇볕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나선다면 한·미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북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공간은 지극히 협소해진다.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북한 주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시장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햇볕정책의 방향으로 가되 그 정책 수단은 진화·다변화·정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보수 정부가 물려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비유컨대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망원경으로서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목적지와 거기로 가는 길을 확인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시장제도를 기초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북한 주민과 경제가 변하면 통치체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내암을 건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실의 냉철한 분석과 대처를 위해 현미경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이는 “사자처럼 맹렬히 들어가 제비처럼 신속히 나오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제재는 5·24 조치와 달리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마저 실패하면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급증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도 지속해야 한다. 이번에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지원 신청을 통일부가 승인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한국이 인도적 위기에 부합시킨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태도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건강해야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동시에 북한에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점에서는 추후 경제협력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우회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통일은 로도가 아니다. 망원경을 가진 진보와 현미경을 가진 보수가 함께 전심으로 협력해야 찾아오는 선물이다.

모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역사에서는 흔히 큰 그림을 놓치는 장면이 많다. 1930년대 승승장구하면서 히틀러는 “우리에게겐 과학은 필요없다”고 수많은 독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수많은 탁월한 유대인 과학자보다 아리안족의 우월적 지위에 바탕한 사회가 더 중요했다. 결과는 그들이 쫓아낸 과학자의 힘에 의한 독일의 패배였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 많은 유대인 과학자들이 독일을 탈출했다. 독일 국민의 일치된 단결에 광기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최근의 한국은 너무 전체주의적 비슷한 의견 일치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저 유명한 망망대해에서 한 조각의 일엽편주에 의지한 채 해에는 4명의 인간들, 결국 1명을 살해하여 3명이 그 인육을 먹고 버틴 끝에 구조되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1명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3명을 포함해서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한 명을 희생하여 세 명을 살렸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따졌다 (더틀리 스티븐스 케이스: The Queen v. Dudley and Stephens).

만일 법관이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를 적용했다면 이들은 무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모두가 유죄를 선고했다. 샌델 교수도 이 예를 들면서 벤담의 공리주의의 허점을 파헤쳤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후에 전체주의 국가 원리에 악용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1948년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서두로 저 유명한 공산당선언을 발표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또는 깔아뭉개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좀 불만이다.

한국의 현 집단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알고도 잊어버려 다양한 사회의 가치를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교활한 짓이고, 모르고 몰랐으면 마보 천치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사를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





김인수 (사대 55)

# 대한민국 국민은 亡國之民(Ruined people) 인가?

옛부터 君民水과 하여 대통령의 직위는 배(舟), 국민은 물(水)이라 하였다. 물의 힘으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이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하며 民心(민심)이 天心(천심)이라고 국민들의 의지와 판단이 정의(正義)를 택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탄핵까지 이르러 헌법재판에 의하여 더 이상 대통령 직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부끄러운 소식을 접하니, 이만생활 반세기 동안 조국의 번영과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조국 소식이 일희일비하며 살아왔는데 현금 조국이 亡國(망국)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볼 때 罔極之痛(망극지통) 한없는 슬픔을 가진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고위공직에 많으며 그 동문들 이름이 세간에 올라 마치 魚物廳(어물전 fish shop) 亡身(망신)

은 “필투기”가 시키듯 서울대학 출신 동문 전체의 명예를 훼손 시키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헌정 70년 동안 자유당 이승만 정권 시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정치 악습과 그 헌정 개편을 상실하고 부정부패와 不義(불의)를 국정으로 수행한 역대 대통령들을 볼 때 대한민국에는 위인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며 특히 서울대학 출신인 동문들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뒷받침한 주역 인사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의 실수 이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나라를 도둑질하는 무뢰한들에게 추호의 동정도 할 수 없다. 참으로 동문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부끄럽고 가슴을 치고 통분하는 동문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어렵게 서울대학을 나왔는가?

모교 출신 지도자와 언론인들의 날카로운 충고 조언에

통감하며 민망한 얼굴을 어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 동포사회에서 질시하여 서울대학 출신을 바라보는 좋지 않은 부정적 시각이 많다. 서울대학 출신들은 좋은 명예, 우월한 지위, 재력이 있는 곳을 잔꾀를 부려 누리려 할 뿐 책임지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줄 알고 정의(正義)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공동체 의식의 公德(공덕)이 빈약하다.

대한민국 내내 해외동포 사회나 매 마찬가지로 미주동창회에서도 어찌 그렇게도 조국의 악습을 답아가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서울대학 출신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여 구국충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국회의석 300중 80여 의석을 차지한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 서 주기를 부탁한다.

서울대학 출신에 대한 우리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높은 만큼 중요 직책에 있는 동문들 일수록 스스로 돌아보고 ‘노블레스 오블리제 (Nobless oblige)’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지성인(Elite)의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것은 상생의 원리요 정신을 살리는 길이요 나라를 위한 일이다.

(현 뉴잉글랜드동창회 이사)



# 제11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수여식 개최 미주 동문들 활발한 참여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증명해 주듯 최근 (재)서울대발전기금 장학금에 미주 동문들의 참여가 증가했다. 오랜 기간 먼 미국 땅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고국과 모교를 잊지 않는 후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가족과 스승을 기리며 전한 미주 동문의 장학금**  
195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신설 첫 해 입학한 이재승 미시간대 교수는 하이브리드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듬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 당시 돈독했던 사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부로 장학금 수여식에는 매년 하이브리드 교수의 가족들이 참석해 기부자와 선친인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있다.

조카들이 고모의 유산을 모교에 기부한 ‘최애옥 장학금’, 등록금을 쥐어주며 ‘공부에 전념하라’ 일러준 故황산덕 교수를 기린 송학린 기부자의 ‘황산덕 장학금’, 양가 부모님(네 분 모두 교수)을 추모한 김기봉·신경은 동문 부부의 ‘네 교수 장학금’, 선친을 기린 ‘오상하 장학금’ 등 많은 미주 동문들이 가족과 스승을 기리며 장학금을 설립했다.

**멀리 있어도 변치 않는 모교, ‘서울대인’의 후배 사랑**  
미국 간호장교로 근검절약에 열심인 모은 돈을 기부한 홍진(미국명 서진) 기부자는 “모교의 선한인재 장학금 캠페인을 보고 가난했던 대학시절이 떠올라 평생 근검절약한 돈을 보낸다”며 ‘홍진·서정범 선한 인재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간호대 미주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빈 곳에 있지만 후배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전하고 싶다”며 강신자 동문이 장학기금을 출연한 데 이어 강 동문의 친구인 최덕순 미주 동문이 장학금을 기부했다.

또한 많은 미주 동문들이 후배들만큼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타국 땅에서 고생한 본인의 인생을 담아 ‘박종수 장학금’, ‘오세경 장학금’, ‘정재선 장학금’ 등을 쾌척했다. 장학금 기부자인 미주 동문들은 물리적 거리로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함께하진 못하지만, 수혜 장학생들의 감사편지를 읽으며 장학금 기부로 하나된 선후배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는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5시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기부자와 장학생이 함께하는 「2017학년도 제11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갖고,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1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패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기부자와 장학생이 함께하는 「2017학년도 제11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갖고,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1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서울대발전기금은 220여 장학기금을 운용해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10년이 넘게 기부자와 장학생간 만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 전체 장학기금 중 10개 이상의 기금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기부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는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주요 기부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인사말, 오용호 기부자 격려사,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 감사(독어독문학과 김희범 학생, '14인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오용호(법대 '73년 졸업) 후원자는 기부자 대표로 후배들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로 서울대 가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세계 각국 누구와 경쟁해도 앞설 수 있는 실력을 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여기 모인 우리가 서울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늘 맺은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모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생 선정

서울대는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17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기초학문 등 지원·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해 오고 있다. 학문후속세대는 기초학문분야 적합성, 학업계획서, 논문계획서 및 현재까지 연구성과 등에 대해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장학생 선정은 박사과정 대상 재학생 61명과 수료생 90명 등 총 151명이 선발됐다. 올해부터 기초 과정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재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석사과정 재학생 70명도 첫 선발됐다. 선발된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간 2000만원, 박사학위논문 준비 수료생은 연간 2400만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증서 수여식

# 트럼프 대북 3원칙, 6자회담 없이 중국 압박해 북 비핵화



김현기 (경영대학원 9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북한에 대한 미팅을 했다. 그(김정은)는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한다(He's acting very, very badly)”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19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한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19일)한 직후 나온 것이었다.



김정은 신형 로켓엔진 실험 소식에 트럼프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 대화보다 핵포기 우선 정책 무게 5월 대선서 누가 당선 되더라도 미국 대북접근법과 조율 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5~19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순방과 그 전후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도 반영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법도 이와 함께 윤곽을 드러내왔다.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미 6차대표 방중, 회담 재개 목적은 아닌듯

트럼프 행정부 대북접근 3원칙

첫째, 비핵화 없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 맥 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쌍궤병행(雙軌並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북핵 6자회담은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미국은 6자회담 틀로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미·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재천명하고 싶다. 우리는 (2003년) 미국의 요청으로 미·북·중 3자회담을 추진했고 그후 6자회담으로 확대됐다”며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식 북핵 해법을 더 이상 유용하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만난 후 밤 늦게 방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셉 윤 대표의 방중은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가 아니라 틸러슨 장관 방중 이후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견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꼭 집어 지켰다. 이른바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중국 ‘구명’을 바짝 조이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말 홍상그룹, 올해 거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처럼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세 가지 기초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5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누가 당선돼도 트럼프 정부의 초기 대북접근법에 맞춰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위성락(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울대 객원교

수는 대선까지 과도기를 담당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을 담보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강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흐르도록 유도하기보다 차기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접근 3원칙**

“북한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15일 김관진과의 만남)

“6자회담 틀로는 복귀하지 않겠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 16일 미 CNN 방송 인터뷰)

“중국은 자신들이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시행해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제사회의 대체재는 확실히 가져가되,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중앙일보)



#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장학금 수여

서울대는 개도국 우수인재 장학 프로그램인 'SNU President Fellowship' 장학생을 선정하고, 17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학기 선정된 학생은 치메이잉(CHI Mei Ying, 사범대 국어교육과, 중국 길림사범대 교수), 기미레 락스만(GHIMIRE Laxman, 공대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 아다브 수첸 쿠마르(YADAV Suchen Kumar, 의대 의학과, 네팔 트리부반 대학 교수), 아르게이 몰루게타(AREGAY Mulugeta,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대 교수), 진수예리(JIN Xueli, 의대 의학과, 중국 청두의대 교수) 등 5명이다. (사진: 좌로부터 구민교 국제협력본부부장 및 행정대

학원 교수와 성낙인 총장(가운데)와 함께 'SNU President Fellowship'은 개도국 주요 대학의 교수 요원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울대는 개도국의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4년 'SNU President Fellowship' 장학제도를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선발 지역을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까지 확대해, 이번에 에티오피아 국적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SNU President Fellowship'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생활비 지원, 한국어 교육,



기숙사 입주 등의 혜택이 제공된 2014년 1학기 5명 선발을 시작으로, 이번에 선발된 5명을 포함해 현재 총 21명의 장학생이 본교에서 수학 중이다.

서울대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선도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책 가장 많은 모교 도서관, 북미 10위 텍사스대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 대학 도서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하버드-에일대, 캐나다 토론토대 등 북미대학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186개(국·공립 30곳, 사립 156곳) 대학의 도서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내 대학 도서관 중 도서관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사진)로 지난해 기준으로 536만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330만권)·고려대(329만권)·경북대(318만권)·경희대(257만권)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들 상위 5

서울대 도서 수 536만권으로 국내 1위  
한국 대학 도서관 상위 5곳 합해도 미국 하버드대보다 적어  
국내 대학 절반 도서구입비로 학생 1인당 10만원도 안쳐

개 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를 모두 합해도(1770만권) 북미대학 1위인 미국 하버드대(1985만권)보다 적다. 국내 1위인 서울대 도서 수는 북미대학 10위인 미국 텍사스대가 보유한 1139만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국내 대학들이 일년 평균 1000만권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으면서도 도서관 구입에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70권 이상의 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학생 1인당 연간 2권 이상의 도서 자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이 많았다.

학생 1인당 도서 수가 70권 미만인 대학은 41.4%(77곳)에 달했고, 186개 대학 중 67.2%(125곳)는 일년 동안 학생 1인당 구입한 도서가 2권 미만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대학(57.8%, 107곳)이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로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 동안 도서 구입비로 학생 1인당 6~9만원을 쓴 대학이 54곳(29.2%)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하면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국·공립대가, 열람실 현황은 사립대가 앞섰다. 국·공립대는 평균 83.7권으로 사립대(72권)보다 11.7권이 많았다. 반면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는 사립대가 4.9명, 국·공립대는 5.1명으로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좀더 쾌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 모교 약대, 미국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중앙 미세환경 연구센터 이연화 연구원 수상자 선정 예정

모교 약학대학 산하 연구센터가 미국암학회(AACR,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가 제정한 '젊은 과학자상'(Scholar-in-Training) 수상자를 3년 연속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 약대 중앙 미세환경 연구센터는 이연화(사진, 대학원 재학중) 연구원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AACR 연례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AACR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 학회로, 매년 2만명 이상의 임상·기초 분야 연구자들이 참가해 9천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수여되는 '젊은 과학자상'은 암 연구 분야에서 대학원생, 박사후과정 등을 밟고 있는 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수상자는 약 2천달러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이 연구원은 카레의 원료로 친숙한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생리활성 조절 단백질 'SIRT1'(씨트1)과 직접 결합함으로써 대장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커큐민은 강황을 노랗게 만드는 주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을 도와 염증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쓰인다. 이번 연구로 커큐민



을 활용한 대장암 치료의 가능성이 제시된 셈이다. 이 연구원은 "참가 기회를 얻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학회인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커뮤민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SIRT1을 억제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을 지도한 서영준 교수(중앙 미세환경 연구센터장)는 "본인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춰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이후에는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점이 성과를 내는데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은 news@snuua.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 ❖ 뉴욕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5/07/2017 6 PM, JHS 189 Auditorium, Flushing, NY 문의:212-567-6919 서병선 동문
- ❖ 필라델피아 동문자선음악회 5/06/2017 7 PM MCCC (Montgomery Community College) Auditorium, Blue Bell, PA 문의: 215-499-0320 박혜란 부회장

# 워싱턴 DC 동창회 이사회



워싱턴 DC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안선미)는 지난 3월 12일(일요일) 오후 4 시에 우레옥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에서 2017년 1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심여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1부 이사회와 2부 'long term care 보험 활용' 세미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이사회에서 안선미(농대 65) 회장은 5월 가족야유회와 가을 자선음악회, 그리고 송년잔치를 올해 사업 계획으로 밝히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가족야유회는 어머니날인 5월 14일(일요일: 12시-5시) 매릴랜드 소재 Caderock Park에서 열릴 예정이다.

9월로 예정된 제 3회 자선음악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함은선(음대 77) 동문은 "서울대 동창회가 우리끼리의 친목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힘쓰는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번에 모아진 수익금은 버지니아 장애인 협회를 돕는데 쓰인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올해 송년 잔치는 12월 10일(일) 작년과 같은 장소인 웨스턴 호텔(Tyson's Corner, VA)에서 5: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글 : 한정민(농 87) 편집위원

지난 2년 동안 장학위원장으로 수고한 한희생(수의 60) 동문은 지난해 활동을 보고하며, 지난 연말 총회 때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계속 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이번 3월부터 함은선 전 회장을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 특별기금 관리 및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음을 알렸다. 기타 토의 사항에서 안선미 회장은 그 동안의 과대학 미주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던 서윤석(의대 68) 동문을 이사로 추대하였다.

2부 순서에는 뉴욕라이프의 보험 에이전트이면서 워싱턴 지역동창회 부회장으로 일하는 정세근(자연대 82) 동문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우리는 원치 않아도 때로는 장기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Long term care 보험의 필요성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해주었다.

모든 순서가 마친 후 50대 학년부터 80대 학년의 선배들이 식사와 함께 즐거운 담소와 웃음을 나누며, 갑자기 몰아친 워싱턴의 늦겨울 한파 속에서 훈훈한 일요일 저녁 시간을 가졌다.

# 남가주 상임이사 골프모임

지난 3월 15일 Palos Verdes에 위치한 Rancho Verdes Golf Course에서 성주경(상대 68) 신임 남가주총동창회장 초청 상임이사 골프대회가 열렸다. 절벽에 위치한 이 골프장은, 태평양과 카탈리나 섬을 한 눈에 바라보며 티샷을 시원하게 날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고, 근처에 있는 Trump 미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보다 더 좋다고 한다.

동문들은 바닷바람과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푸른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진 경관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Signature Hole은 Par 4, 437야드 15번 Hole과 Par 4, 308야드 11번 Hole이다. 특히 11번 Hole은 Downhill Lie로 장타자는 단숨에 온 그린을 시도해 Eagle을 노려볼 만하다.

이날 참가한 동문은, 성주경 총동창회장,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 그리고 전 총동창회장인 오형원(의대 53), 박석훈(농대 55), 이정광(상대 61), 임낙균(약대 64), 노명호(공대 61), 서치원(공대 69), 김상찬(문

리대 65), 김병연(공대 68) 등의 상임이사 와 지인수(상대 59), 한효동(공대 58) 공대 회장, 백옥자(음대 71)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유혜연(음대 79) 행사위원 등 14명이 4조로 나뉘어 골프대회에 참가하였다. 바닷가에 면한 골프장이어서 그런지, 날씨는 삼삼하고 쾌적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갑자기 밀려 온 안개가 뒤덮힌 골프장은 온도가 내려가고 다소 추운 듯 했지만, 안개 걷 바다와 푸르른 풀밭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혀 동문들은 18홀을 마무리하였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근처 Vegas Seafood Buffet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했는데, 김건진(문리대 62) 전 총동창회장, 한종철(치대 62) 전 총동창회장, 진관보(의대 72) 행사위원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한규희(미대 68) 미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오형원 총동창회장에게 기념 트로피가 증정되었다. 글: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 뉴욕 골든클럽 신년교례회



2017년 뉴욕지역 골든 클럽 신년교례회가 3월 25일, 80여명의 회원과 가족,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 Fort Lee, DoubleTree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년간 클럽을 발전시켜온 정인식(상대 58) 회장이 회장직을 개인적 사정으로 고사하여,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임원회의의 인준과 이날 참석한 회원들의 동의로 손경택(농대 57) 회원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인식 전회장은 "부회장님들과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골프 대회, 포크닉, 등산, 뉴스레터 그리고 컴퓨터 강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같이 노력해 주신 모든 임원과 음으로 양으로 격려하고 도와 주신 이준행 명예회장님, 임호선 선배님, 최수용 컴퓨터 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전회원이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했다.

손경택 회원은 회장직 수락 인사말에서 "회원 모두는 동문과 그 가족이 구성원이고, 동문은 모교를 공유하는 선배들의 모임이므로 가족과 같은 유대 관계로 일심동체, 상부상조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인사를 했다. 손경택 신임 회장은 정인식 전회장장과 최수용 전임 컴퓨터 연구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새로 가입한 이

병련 가족회원, 양인희, 홍사만 회원의 소개가 있었다. 양인희 신임 회원은 최수용 원장의 뒤를 이어 컴퓨터 연구원 원장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이 날 행사엔 내빈으로 보스턴으로부터 윤상래 미주총동창회 차기 회장 후보가 특별히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학창시절의 추억과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소회, 6월에 보스턴에서 있을 '미주 핑크위원회'의 소개를 하며, 뉴욕지역 골든 클럽의 건승을 기원했다.

전체 1-2부로 진행된 본 행사는 오후 4시 카테일을 시작으로 2016년 회계보고, 새회장 인준, 신규 회장 이취임식, 제2부 경품 추첨 순서로 늦은 저녁까지 화가에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진행 중간 민준기 회원의 가곡 독창, 손영철, 손정자, 홍예경 회원의 기타반주 노래, 게스트로 참석한 배원근 님의 색소폰 연주도 있었다. 경품 추첨은 지난해에도 적극적으로 클럽 활동에 참여했던 원로 회원들이 나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경품추첨을 했다. 많은 경품 중 정인식 회장이 후원한 49인치 Curved UHD TV 2대는 김종훈, 송학린 회원에게 돌아 갔고, 박선식 회원이 후원한 고급보석 반지는 홍예경 가족회원 그리고 대성격인 현금 상품은 김현중 회원이 차지했다.

글: 김원영(미대 81) IT위원장





### 시카고 동창회 1차 임원회



시카고동창회(회장 한경진(상대 59))가 지난 2월 12일 나일스 우리마음식당에서 1차 임원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 새 주소록 발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시카고 동창회 1차 이사회



시카고동창회(회장 한경진)가 지난 12일 오크브룩 소재 드러리 레인에서 1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 날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이사인, 신임위원회 위원선발, 2017년 사업계획, 새 주소록 발간, 동창회 활성화 등의 안건이 인준됐다.

#### 동문 기부금은 어떤 방법을 통해 모금되어지나?

하바드 동문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산을 동문회 혹은 대학에 기부한다. 1. 유언장을 수정함으로 대학/ 동문회에 기부한다. 또한, 설립한 신탁 내용에 기부 조항을 넣어 수정함으로 기부한다.

- 2. 은퇴 연금의 수혜자를 모교/ 동문회로 지정함으로 재산을 일부/ 전부 기부한다.
- 3. 생명 보험의 수혜자를 모교/ 동문회로 지정함으로 재산을 기부한다.
- 4. 개인적으로 설립한 재단을 미래 계획에 모교/동문회를 관리자로 지정함으로 기부한다.

유산의 상속은, 변호사의 조언을 거친 후 상속되는데, 하바드 내에 증여 및 상속전담 기구가 갖춰져서 언제나 재산 기증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의 상담기회가 동문들에게 열려있다. 간단한 예로, 기부에 필요한 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give ( dollars) or (% of my estate) to Harvard University for the benefit of Harvard. The income to be used for (\*), if in the future, in the opinion of (Harvard University) all or part of the income of this fund, can be used for purpose or in the manner. It may be used for any purpose within the corporation powers of the university, that will most nearly accomplish my wishes and purpose. 위의 예에서, 우리는 (\* )을 '서울대 클럽 설립 기금'이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증여자산으로는 현금, 부동산, 채권, 개인 소장품, 투자수익금, 은퇴연금, 생명보험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사망 시를 예로 다뤘지만, 생존 시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 몇가지가 있다. 1) 생존 기간 신탁 2) 사전 증여 기금 3) 각종 수입 관리 기금. 그리고 생존 시 기증할 때, 다

음과 같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신탁자 가족에게 생전 시 또한 일정한 정해진 기간에 수입 보장
- 2. 자선 기부금 액수 만큼을 수입금에서 공제
- 3. 수익금 세금 공제
- 4. 투자의 다양화를 통한 위험 분산
- 5. 모교의 설립된 기구를 통한 행정 경비 절감
- 6. 상속세 감면 혜택
- 7. 모교 증여 액수의 극대화

#### 동문 기부의 실제 예화

54년도에 하바드, 61년엔 MBA를 졸업한 후, 식품 도매 사업에 뛰어들어 5천여개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부를 이룩한 워렌은 뉴햄프셔에서 거주하다 사망하는 부인 메리가 먼저 세상을 뜬 후에, 자신의 삶에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이인 1세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그는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진 빚을 갚아야 할 때다. 하바드는 나의 인생을 바꿨으며, 내가 이룩한 부의 일부를 모교 하바드에 기증하는 것 외에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한 후, 그는 동문들에게 동참을 추진하고, 은퇴 후 여생을 즐기며 하바드의 각종 모임에 참가하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또 다른 예로, 87년 86년 학번인 케이트와 빌 부부 동문은 19살 된 딸이 Vikings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딸에게 모교인 하바드에서 공부하도록 추천할 수가 있었다. 그는 하바드는 우리들에게 상상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며, 성취에 대한 확신까지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하바드의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란 기부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각종 세제의 혜택을 누리고, 그의 Stock을 신탁함으로써 생활을 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입은 하바드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선배동문의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40대 초 전문직업인인 95학번인 에린과 마이크 동문 부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래의 하바드가 그들의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며, 우리의 실천은 지금이야말로 적당한 때 "it is never too late or too soon to do" 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육공천리목 艮상일층루 蔚蔚千里目 更上一層樓 는 당 시인 왕지환의 <동관작루>의 한 구절이다. '천리 밖까지 바라보고자 다시 누각을 한 층 더 오르네.' 라는 뜻으로, 좋은 경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볼 수 있듯이, 인간 또한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좀 더 의미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비록 처해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눈앞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큰 포부다. <귀거래사>의 송나라 시인 도연명은 그의 <잠시>에서 '젊은 시절은 거듭 오지 않으며, 하루에 아침을 두 번 맞지 못한다', 또한 세월 부대인 歲月 不待人 ;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 더 높은 이상을 품고, 더 차원 높은 관계로, 우리 모두 한 층 더 올라가 보자. 허드슨 강은 흘러 광활한 대서양으로 가네! 1) 생존 기간 신탁 2) 사전 증여 기금 3) 각종 수입 관리 기금. 그리고 생존 시 기증할 때, 다 <변호사, 15대 회장후보>

### ‘시애틀은 뇌과학 중심지’

#### 오승욱 동문, 뇌 연구 상황 소개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공대 72))이 지난 11일 뇌과학 전문가인 오승욱(자연대 화학 89)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벨뷰 뉴포트 도서관에서 마련한 '3월 SNU포럼'은 시애틀이 뇌(Brain) 연구의 중심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연구소에는 현재 박사급 연구원 120여명을 비롯해 전체 인력이 350여명에 달해 전세계에서 최고 뇌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년 전 뇌지도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연구소를 3대 협력기관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을 정도다.

서울대를 거쳐 매사추세츠대학에서 바이오메디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곳에서 8년간 연구원으로 뇌연구에 매진한 오 박사는 최근 10년 사이 뇌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며 "이 같은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공학과 이미지 산

오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이 지난 2003년 설립한 뇌과학



업, 빅데이터,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었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현재 70억 정도인 세계인구의 네트워크를 다 구성하면 10~100조 되지만 인간 뇌세포는 1,000억개 정도 되고 이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면 100~500조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오 박사는 앨런연구소에서 근무한 뒤 지난 2015년 동료 연구원 한 명과 독립해 GMI라는 비영리단체를 별도로 세웠다.

그는 "GMI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뤄진 뇌에 대한 엄청난 연구의 정보를 정부기관, 연구기관, 제약사 등에 효율적으로 제공해 장기적으로 인류에 이로운 신약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시카고 과기협 수학·과학 경시대회 개최



대상은 4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이며 1등을 할 경우 일리노이 주지사상, 메달,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델타 항공 1500달러 상당의 한국 왕복 항공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김 위원장은 "전 미주에서 보는 시험으로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할 경우 전미 단위로 순위를 정해 전국 대상(National winner)도 수여한다"며 "당일 시험시간 동안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와 체험시간 동안 학생들을 위한 과학 시범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오후 1시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로는 김병석 교수가 '과외활동을 통한 청소년 리더십 향상과 대학진학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15일 KSEA 김경아 (사진, 자연대 93, 스웨스턴대)는 이번 경시대회에 많은 한인 학생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는 경시대회는 오는 8일 오후 1시, 노스이스턴일리노이대학 사이언스 빌딩(5500 North St. Louis Ave., Chicago, IL 60625)에서 열리며 등록비는 30달러로 31일까지 온라인 접수(ksea.org/nmsc)에서, 당일 현장에서 40달러에 등록(과학 시험 별도 10달러)할 수 있다. 문의: 404-431-0204, gloriakj@gmail.com

### D.C. 이내원 동문

#### '이순신 국제학술대회' 발제자로 초청받아



서울에서 열리는 이순신 국제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초청 받아 미국에서 자생한 이순신 교육 운동을 본국 조야 요인과 세계 석학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는 서울특별시, 아산시,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순천향 대학교 이순신 연구소가 주관한다.

학술 주제는 'The Global Perception on Admiral Yi Sun-Sin' 이며 이 동문의 발표 주제는 <미주 이순신 교육 운동의 기초와 지향 목표>이다.

미주 이순신 교육 운동의 상징인 워싱턴의 이내원 동문(사진, 사대 58)은

### 탁순덕 동문 자원봉사 휴스턴 한인회관의 지킴이



의 자금이 투입되어 당시 휴스턴 미술관 측이 1백50만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 1백50만달러는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풍산그룹, 그리고 한인사회의 후원으로 조성됐을 때 탁 동문은 당시 어떤 한인사회의 인사들이 후원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현재 한인회관은 토요일에는 한인학교, 문화원의 강좌는 주중에 혹은 각종 한인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는 관련 단체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한인회관을 찾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영어는 못하고 그렇다고 궁급한 것이 있어도 어디 물어볼 만한 가족도 없는 노인들이 탁 동문이 상대하는 '고객'들이다.

사자'라는 이름으로 한인회관(사진)을 찾는 동포들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있는 한인회관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탁순덕 동문(간혹 사람들은 박사님, 혹은 선생님이라 호칭한다)은 자신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2004년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만 13년을 한인회관에 상주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한인회관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특히 2007년 12월 7일 미국 남서부 최대의 미술관인 휴스턴 미술관에 새로 한국실이 문을 열었을 당시, 총 3백만달러

상당 내용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운전을 해주기도하고 택시를 부르는 일에 대한 문의부터 병원출입에 필요한 영문 서류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는 식당에 대한 문의나 병원



에 대한 소개 등을 탁 동문에게 묻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다고 한다.

탁 동문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 알려져 있지만 한인회의 이사이고 KCC의 상근이사이며 서울대동창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탁순덕 동문의 도움을 받은 한인들은 이들이 당연히 한인회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한인회에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탁순덕 동문은 그저 묵묵히 한인회관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돕고 있을 뿐이다. <미주중앙일보>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1(Wed) - 5(Sun), 2017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Reservations: 1-800-524-4557  
Main:855-696-6715 Fax:626-964-9333

미국 서부의 경관, 문화의 중심지 Los Angeles 교외에 위치한 Pacific Palm Resort에서 제 34 차 학술대회와 동창회가 201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발간 학술대회와 동대 같이 있는 www.CMB lecture program으로 정성껏 여가 중점적으로 가족들을 모시겠습니다.

보통 관광지의 안내를 받아 Getty Museum를 방문 하며 Joshua Tree National Park를 둘러 보고 모시는 길에 Palm Spring Charles Malm에서 소담도 갈가시도록 경치라고 있습니다.

보통 발발 기 간에 많은 사람 주요 호텔과 동거하는 경치에는, 제비를 사서고 계십니다.

부다 할때 같이 열대 해산의 휴가기 및 관광 남가주의 경치한 남가에 최근 직간의 학술 정보와 문화의 교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PRE-CONVENTION GOLF (March 1, 2) TOUR: (March 4, 5)  
OAK Quarry Course March 1, 10:00 am Paul Getty Museum Tour  
Pacific Palms Resort Course IKE Half day: Sat. pm. March 4, 2017  
March 2, 8:00 am Joshua Tree National Park & Shopping  
One day: Sun. March 5, 2017

준비위원회: 박경일(65) 황재현(65) 김명원(68) 송정호(68) 김봉기(68) 이원영(68) 이원만(68) 최민(68) 송정호(68) 변영익(69) 안병일(69) 김경환(71) 이길호(72) 고경원(72) 최영환(76) 장동훈(77) 그리고 서울에서 최미주동창회 남가주지역 동창회원 분들 드림



### 제 34차 의대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이모 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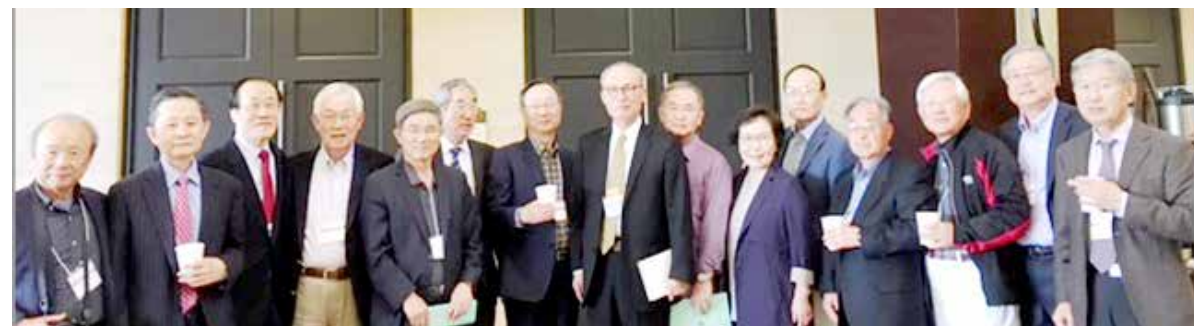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춤'**

님의 울동을 따라  
그녀는 춤추는 꽃이 되었다  
응시하는 눈동자는  
선을 그리며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그림을 선물한다  
무대를 둥글둥글 돌면서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만큼  
청중들에게 쥐어준다  
하나 하나 친절하게

진한 향수가 뿌려진다  
자유로운 동작의 지속되는 조화  
두 몸매가 하나로 연결되는  
떨어질 수 없는 손  
그 고리의 신호를 따라  
다채로운 화폭이 전개된다  
화려한 한 쌍  
소중한 생명에  
축복이 눈부시게 창조되는 밤에

하늘로 날아간다  
날개로 춤추며 날아간다  
태양보다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간다  
은하수 바다에서  
흐르는 별이 되어 날아간다  
대연회장을 장식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춤을 따라  
잊혀지지 않을 따뜻한 그 마음에

서윤석(의대 62)



### 샌디에고 임천빈 동문 '앨리스 아일랜드 상' 수상



샌디에고 한인회 명예회장이 임천빈(문리대 61, 사진) 동문이 'National Ethnic Coalition of Organizations(NECO)' 이 수여하는 'Ellis Island Medal of Honor'상을 수상한다.

이 단체는 이민자의 신분으로 애국심과 포용 등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고 자신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인물들을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작년 5월에는 본 미주동창회 손재옥(가정대 77) 회장의 부군 탐하(하형록) 목사가 수상하기도 했다, 본지 2016년 6월호 참조).

1942년 생으로 용산고와 모교 인문학부를 졸업한 임 동문은 1968년 평화사절단으로 도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해 28년만인 1998년에 샌디에고 주립대학(SDSU)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카운티 북부 도시인 엔시니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 동문은 지난 2001년 모교에서 '성공한 졸업생'으로 선정돼 이 해 졸업식 만찬행사의 주연사로 초청되기도 했고 2009년에는 한국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만찬 연설에서 그는 이민 초기 영어가 서툴러 간신히 첫 직장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알래스카에서 16시간씩 중노동을 한 일, 중고장비를 사들여 햄버거 식당을 개업한 사연과 10곳의 홀마크 카드점을 경영하면서 대문·창틀 제조회사인 지금의 '시에라 피드밀'을



소유하고 이후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일화를 담담하게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바 있다. 지난 2001년 샌디에고 한인회 이사장을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한인회와 노인회, 글로벌 어린이재단 등 봉사단체에 해마다 기부를 하고 있다.

NECO로부터 수상 통보를 받은 후 임 동문은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48년 전 거의 빈손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의 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나눔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역설했다. 그리고 미주동문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든지 'Willing Heart'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Attitude가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지난 해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자서전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하겠다'(I will work for Nothing)를 출간한 임 동문은 본 미주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나눔위원회(Charity Committee)'에도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 최경은 첼로 독주회

No.1, S.Prokofiev Cello sonata in C major, F.Chopin Cello Sonata, J.Massenet "Thais" meditation등을 열연하여 청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최경은 동문은 예원중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영국 북부 왕립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USC Thornton school of music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동아콩쿨, 중앙콩쿨, 이화콩쿨, 경향 콩쿠르 등에서 1 위 및 윤파음악상을 수상하였고, Julio Cardona국제 콩쿠르 에서는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Macao Orchestra, Chester Phil. RNCM 오케스트라, 프라임필, 천안시향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El Camino College 교수, Montecito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 동문은 이 날 B.Britten Solo Suite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 정서영 개인전 뉴욕 '티나 김 갤러리'에서

형식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를 보여주는 작업을 조각, 설치, 드로잉,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온 정서영(미대 83) 동문의 개인전이 내달 15일까지 맨하탄 첼시에 있는 티나 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정 작가는 다른 장르나 매체를 통해서도 '조각적인 세계'를 탐색하고 구현하는 아티스트이다. '할 수 있음과 보이지 않는 형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2007년 이후 정서영 작가의 조각, 설치, 비디오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스투트가르트 미술대 연구과정을 마쳤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예술재단 그랜트를 받아 개인전을 연 이후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포스트 단색화 구상화가로 한국현대미술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으며 산업용 건축재료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을 파괴하는 조각품, 설치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장소 525 West 21st Street, New York, 문의 212-716-1100

### 나누고 싶습니다

Northern Virginia에 있는 중앙씨니어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영어편 Korean-American Seniors 편집을 맡고 있는 정계훈(문리대 55)입니다.

한국어편 Newsletter는 주로 회원들을 위한 것이고 영어편은 이곳 지방정부와 협조해주는 병원, 대학교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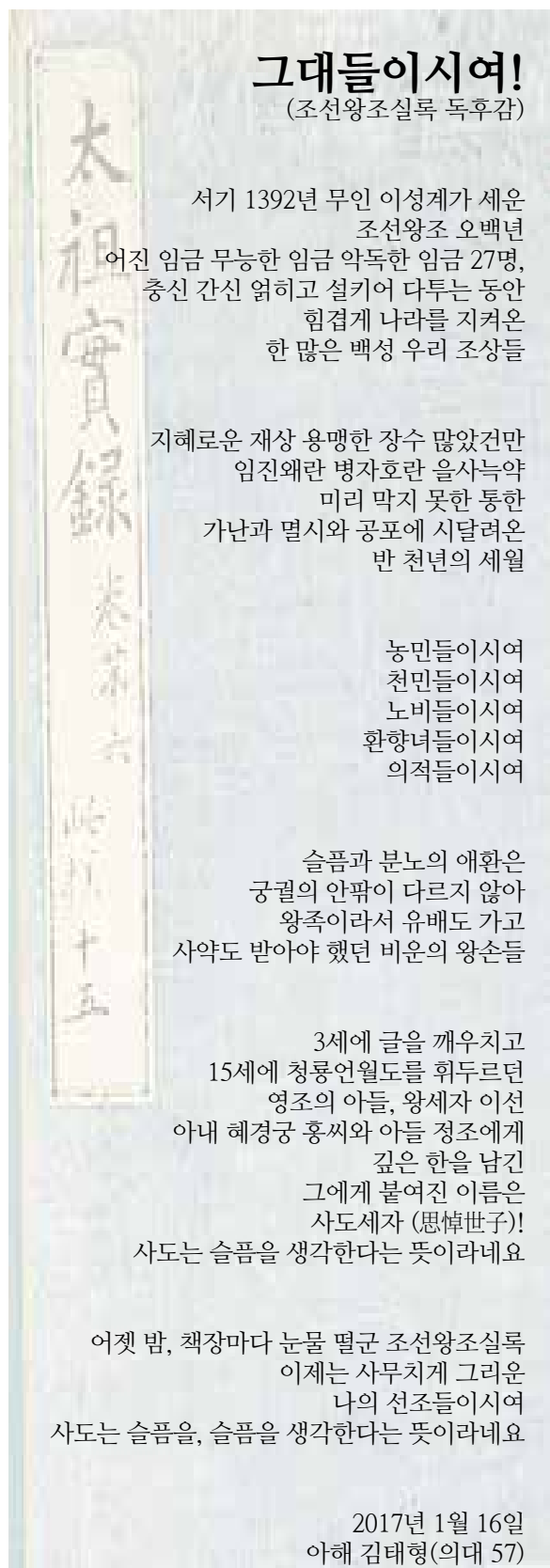
우리 Senior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 건물관리, 은퇴자금, 은퇴후생활, 가족관계등 - 이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관심거리가 아니라 후손들이 젊었을 때부터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씨니어센터에서는 매학기 5백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거의 100명이 되는 봉사자들이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40개 이상의 학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씨니어센터나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동문들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연락처: 571-284-7990와 Kaechung100@yahoo.com 입니다.





## 한국 방문과 미주동창회



허유선(가정 83)

대한항공을 타고 조국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에게 탄핵결과 들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네, 탄핵되었다고 합니다” 한다. 홈커밍데이를 같이 다녀온 한 동문이 만든 미주 동문들의 카톡방이 생겨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동문들을 초청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그 카톡방을 보며 “아, 그래도 탄핵이 되겠나?”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탄핵소식은 놀라웠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텅빈 인천 공항이었다. 미주노선은 항상 공항에서 서를 타고 입국검사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중국관광객이 없어 한산한 공항의 모습이였다

토요일 아침,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의 형태겠구나 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특산물 판매 안내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대학시절 짝새아저씨, 잠바아저씨,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워졌던 방패등고 있는 전경들이 다 내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얼굴들이다.

오랫만에 만나는 친구들과는 정치이야기를 피하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촛불이었다. 한 친구가 “트럼프는 언제 탄핵이 되니?” 라고 묻는 질문에 “inappropriate behavior 라고 사소한 클린턴도 탄핵이 안된 미국에서 트럼프가 탄핵이 되겠나?” 하고 답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다. 적어도 80년도 삼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몇몇은 뜻있는 시위에 젊음을 불사르고 있을 때, 묵묵히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또 다르게 젊음을 불사르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도 이러한 분노는 없었다. 아니 이런 절망은 없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관악산 등반에 약주를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한없는 주사를 늘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다지 절망하지 않았다. 그때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모습만 있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매우 김우중 회장의 책을 얼마나 가슴 설레이면서 읽었는가? 졸업 후 삼성맨, 대우맨, 이렇게 불리우는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이루어 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대를 걸었는가?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는 어떤 대한민국인지 궁금하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만큼 틀린 다른 모습일까?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어쩌다가 모두 애국자가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쉽게 보고있는 삼성 셀폰, 엘지 세탁기, 한국타이어,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등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자부심이 컸다. 한국이란 나라가 멋있게 성장해 돌아가고픈 내 나라, 내고향으로 자리잡던 날들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삼성을 보며 이제는 없어진 대우를 떠올리며 겁이 나는 건 너무 큰 노파심일까요?

우리나라가 못살았던 60년대 잘 살고 있던 필리핀과 현재 필리핀의 경제를 보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나이드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거쳐야할 여정들이 걱정스럽다.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진작에 떠올라야 했던 세월호가 이제 물위로 나왔고, 마음 상하고 슬픈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위안을 주고 마음 속에 슬픔을 굳게 빗장 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탄핵이라는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주에 있는 우리 동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신호등이 뿔치 말로만 들던 아이와, 방학때 서울에 다녀와 싶지도 신호등을 본 아이는 크고 나서 아주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 미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 동문들은 동문 후배들이 많은 여행을 통해서, 미국 등 대한민국 밖의 여러나라들을 방문해 보고, 정말 세계는 넓고 절망하기에는 너무 많은 가능성이, 희망이, 인생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한다.

모교 국제협력본부에서는 매년 방학때 학생들에게 미국의 각 도시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나눔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미주지역의 각 지부 동창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면서 이 일을 적극 격려하고 협조해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발전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한다.

<편집위원, 특별사업국장>



가의 인사와 가족소개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출판기념회 모임 후 강 동문이 본보에 보내온 글이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읽고 쓰고 공부에 단련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팔자소관이 무엇이나 소중한 누름소같아요. 일과 되새김질 그리고 이머식자, 소량 비슷하네요 여기저기 모여들어 한판 벌려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의 추임새 덕분에 흥겨운 놀이였습니다 행복한 놀이판이 늘상 우리안에 벌어집니다

봄벌에 한가로운 소갈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무엇을 들던 보던 곱곰히 더불어 새겨봅니다 모두가 사랑이네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네요 따뜻한 눈길로 포근한 마음으로 3초만 둘러보세요 우리의 발걸음은 상쾌하고 손에 힘이갑니다 크고작은 행사들이 동문들의 발걸음속에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해지는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책 소개: 동창회보 3월호 참조)

## 강신용 동문 ‘3초의 미학’ 출판기념회

강신용(사대 73) 남가주총동창회 차기회장 수필집 “3초의 미학” 출판기념회가 3월 10일 Dream Wedding Banquet Hall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동주최인 서울대 남가주총동창회(회장 성주경), 재미대한체육회(회장 안경호), Opera California(단장 노형건) 와 공동후원인 미주국제 Pen 문학(회장 이승희),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이윤홍), 재미수필가협회(회장 김화진) 등의 후원 단체와 다양한 지인관계는 그동안 강신용 차기회장의 폭 넓은 사회생활과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깊이 몸속에 내재되어 쌓인 언행이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어낸 결실로 성황 속에 축복된 날을 장식했다.

노형건 단장의 사회로 흥명기 밝은 미래재단 이사장의 축사와 김영중 국제펜 한국본부 미주서부지역위원회 전회장의 격려사, 조만연 SAT진흥재단 전 이사장의 내외빈 소개, 이정아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전회장의 작가의 수필 세계, 문지현 방송인 수필낭독, 축하패 증정에 이은 강 작

# 제 26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준비에 박차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가 처음으로 보스톤에서 열리게 된다.

보스톤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역사와 교육의 도시이다. 유서깊은 보스톤에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인 평의원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미주 동창회의 역사에도 큰 의미를 가지며 때문에 많은 동문들이 보스톤 지역에서 열리는 평의원회의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이다.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동문들은 윤상래 차기회장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모두 한마음으로 그에 걸맞은 손님맞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행사는 보스톤 외곽의 Woburn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열리게 된다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SSACHUSETTS, 01801, USA, TEL: +1-781-932-0999 FAX: +1-781-932-0903, www.bostonwoburn.hilton.com). 행사에 참여하는 평의원들과 일반 동문들은 5월 23일까지 호텔에 예약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호텔 측에 알려

|    | 6/23 금요일            | 6/24 토요일                 |
|----|---------------------|--------------------------|
| 오전 |                     | 평의원회의<br>15대 회장선거        |
| 오후 | 세미나<br>이춘근교수(3-5pm) | 평의원회의<br>안건토의            |
| 저녁 | 전야제/음악회<br>지부회장모임   | Dr.J.Lind 기조연설<br>음악회/천막 |

주면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Group N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EVENT, Group Code: SE622).

이곳은 로건 국제공항에서 14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편을 이용하여 보스톤에 오시는 동문들은 공항 도착 후 택시나 우버, 또는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할 수 있다. 공항버스를 이용할 경우 다섯 방향의 다른 운행루트가 있으니 반드시 Woburn 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 버스는 주중에 매 30분마다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임은 성인 왕복 \$22 (65세 이상 \$20)이다. Woburn bus terminal에서 호텔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이며 호텔에서 Shuttle을 운행하니 도착 후 호텔로 전화 (1-781-932-0999) 를 하면 된다. Amtrak을 이용하는 동문들은 Boston South Station 에 도착 후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할 것을 추천한다.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12 마일로 약 20분 가량 소요된다.

행사는 6월 23일 평의원 회의의 전야제, 24일 평의원 회의 및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 행사는 두 번의 특강이 계획되어 있다. 먼저 6월 23일 금요일에는 이춘근 교수의 강연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안보’란 주제로 있을 예정이며, 6월 24일 토요일 만찬에는 Dartmouth College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Jennifer Lind 교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춘근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Lind 교수는 미국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2012년 Rand Corporation (Think Tank)의 Bruce Bennett 박사와 함께 ‘Sudden Collapse of North Korea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집필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두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동문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만찬에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며 동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글: 이상운(수의 87) 차기 사무총장

- ❖ 문의: 윤상래(978-835-0100) 이상운(508-251-9691) 장수인(978-264-2988)
- ❖ Hotel: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
- ❖ Tel: +1-781-932-0999 /www.bostonwoburn.hilton.com
- ❖ 예약마감: 5월 23일, 화 (\$119 King Bed / \$129 Double bed/night) (5월 23일까지 예약시 특별할인 가격 적용)
- ❖ Group Name: SNU ALUMNI EVENT ❖ Group Code: SE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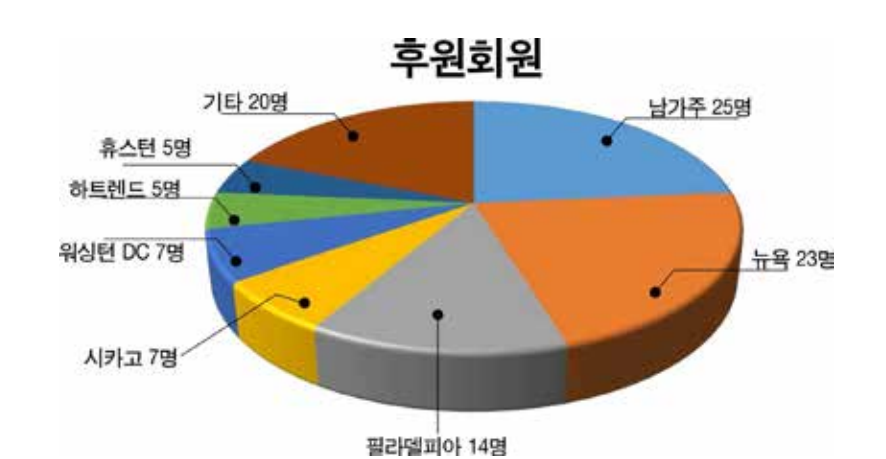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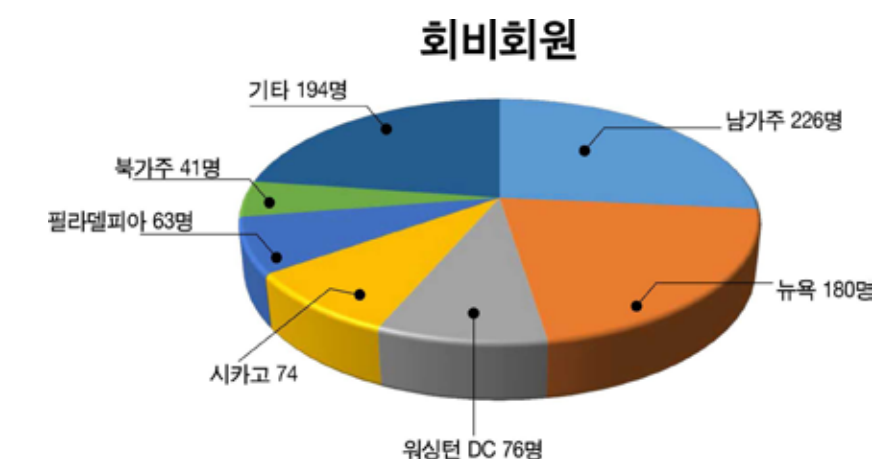
### 동창회비와 후원금 납부 상황

그동안 동창회비와 후원금으로 도와 주신 동문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31일자로 2차년도 9개월 동안의 회비 납부 동문수는 854명으로 회비수입은 64,050불입니다. 작년 평의원회의에서 통과된 2차년도 회비 수입 예산 90,000불에 비해 26,000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후원금 예산은 63,000불인데 3월말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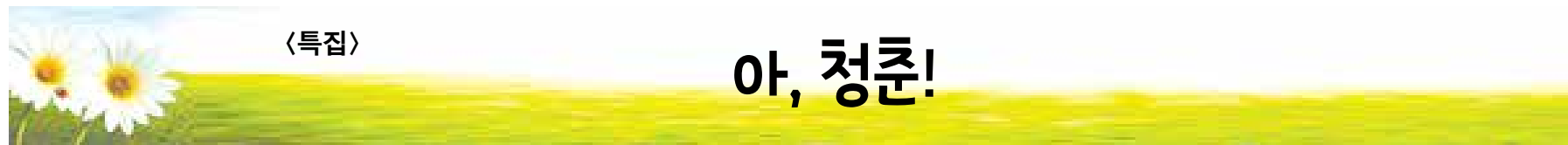
재 40,665불로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학기금, 나눔기금등 다른 기금들도 모두 부족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주소가 겹친 회원, 부부동문, 동창회 보가 반송되어 오는 회원등을 정리하며 데이터베이스

를 열심히 업데이트한 결과 3월말 현재 총 회원수가 6,431명으로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파이차트는 지부별 회비납부 회원수와 후원금을 보내주시 회원수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문 여러분의 끊임없는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재무국장 이성숙(가정대 74)

| 지부     | 회원수   | 회비납부 | 후원자 | 후원금\$  | 지부     | 회원수   | 회비납부 | 후원자 | 후원금\$  |
|--------|-------|------|-----|--------|--------|-------|------|-----|--------|
| 남가주    | 1,898 | 226  | 25  | 10,725 | 달라스    | 79    | 10   | 0   | 0      |
| 뉴욕     | 1,387 | 180  | 23  | 5,815  | 오하이오   | 83    | 12   | 1   | 200    |
| 워싱턴 DC | 575   | 76   | 7   | 1,125  | 오레곤    | 58    | 11   | 2   | 350    |
| 시카고    | 424   | 74   | 7   | 1,525  | 룩키아마운틴 | 50    | 6    | 0   | 200    |
| 북가주    | 400   | 41   | 3   | 575    | 캐롤라이나  | 50    | 7    | 0   | 0      |
| 조지아    | 219   | 23   | 0   | 215    | 하와이    | 39    | 9    | 2   | 1,200  |
| 필라델피아  | 221   | 63   | 14  | 14,260 | 미네소타   | 38    | 10   | 1   | 200    |
| 뉴잉글랜드  | 203   | 23   | 2   | 1475   | 테네시    | 38    | 3    | 0   | 0      |
| 휴스턴    | 160   | 15   | 5   | 750    | 애리조나   | 34    | 4    | 2   | 300    |
| 샌디에고   | 132   | 14   | 3   | 0      | 중부텍사스  | 33    | 2    | 0   | 0      |
| 워싱턴 주  | 113   | 14   | 2   | 800    | 유타     | 18    | 1    | 0   | 0      |
| 하트랜드   | 94    | 15   | 5   | 950    | 알래스카   | 2     | 2    | 0   | 0      |
| 플로리다   | 83    | 13   | 2   | 0      | 합계     | 6,431 | 854  | 106 | 40,665 |







###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네니  
장밋빛 봄,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  
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네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인항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네니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네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네.  
근심과 두려움, 자식남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던 열여섯이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양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雪)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氷)에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고 늙어가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여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라고 늙 푸른 청춘이네.

사무엘 울만 Samuel Ulman이 78세 때 쓴 시다. 71세 때 인천상륙 작전을 진두 지휘한 맥아더 장군이 예송하여 액자에 넣어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놓았는데, 종군기자 프레더릭 필머가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주둔하고 있던 그를 찾아갔을 때 이 시를 보고 반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해 유명해졌다. 또한, 맥아더가 2차대전 후 일본에 사령관으로 머물렀을 때 이 시의 액자를 벽에 걸어놨는데, 일본인의 애송시가 되어 결국 일본인의 기부로 엘라바마 대학에 사무엘 울

슨 박물관이 세워졌다.

2012년에 남아공에 출장갔을 때 호텔 방에서 본 <일학년 The First Grader>이라는 영화가 기억난다. 최고령의 나이로 초등학교를 시작한 기네스북 경력을 가진 케냐의 키마니 마루지 (Kimani Maruge)의 실화를 2010년 영화로 만든 것이었다. 키마니 마루지는 2003년 처음으로 케냐가 무료초등교육을 발표한 후, 당시 84세의 나이로 초등학교에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2005년엔 그 학교의 대표로 선출되어 그해 9월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와 UN총회에서 무료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연설하였다. 하지만 2007-2008년 선거 후 폭동으로 그의 집은 파괴되고 2008년초 난민수용소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4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가 학교를 다녔다. 2008년 6월, 89세인 그는 학교에 퇴출당해 양로원에 보내졌지만 그곳에서도 근처 학교에 6학년 에 등록해 다녔다.

얼마 전에 정년 퇴직 후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한 할머니가 81세에 아이폰 앱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에 사는 와카미야 마사코로 육개월 간 앱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끝에 '히나단'이라는 일본 전통 인형을 단에 진열하는 게임을 만든 것이다.

나의 청춘은 진행형이다.

인들이 얼굴을 가려가면서 불들러가는 기사가 큰 활자로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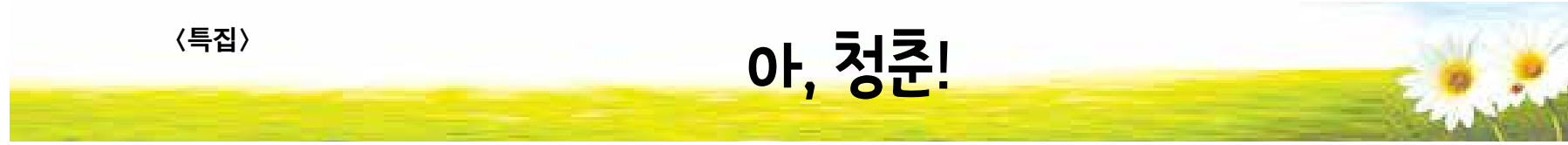
부산시내 한 좁은 골목에 허물어가는 음산한 젓빛 일식 가게이 있었다. 서울대학 학생들이 그곳에 가끔 모여 댄스 파티를 했다. 전화도 없던 시대여서 서로 구두로 연락하여 어둡침침한 골목을 우리들은 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모여 들어갔다. 서울대생 뿐만이 아니고 이대나 연세대 학생들도 끼어 있었다. 다다미 방 주변에 남녀 학생들이 미소없는 얼굴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축음기에 낡은 레코드판이 올라가고 손틀을 돌리면 둔해진 바늘이 상처 투성인 판을 긁으면서 남미의 탱고 음악을 해소병 앓는 노인의 가래섞인 목소리처럼 먼 곳에서 아득하게 흘러보내고 있었다. 마치 우리들의 메마른 청춘의 상처를 어둡고 무거운 음색으로 덧내주듯이 그들 나름대로의 한을 울부짖는 멜로디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앞자리 밑에서 남녀가 서로 사이를 두고 묵묵히 서로의 시선을 피해가며 정확한 스텝으로 발을 빙빙 돈다. 벽에 축주는 쌍의 그림자가 쏠려졌다가 또 늘어졌다 해 간다. 우리들의 찌든 삶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이 흥없는 춤을 이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단 한가지편의 오락이었다.

그때의 우리들의 춤은 “범피” 였다. 언제나 “벌”을 각오하면서도 춤을 춰서라도 살고 있다는 증명을 느끼고 싶었던 때였다. 우리들은 검은 커튼이 걸쳐져 있지 않고 불빛이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방에서 죄없이 흥에 도취된 자유로운 춤을 뚫추어보면서 청춘을 보냈다.

유학 은 그 후 60여년이 강산을 여섯번이나 변신시켰다. 'Dancing with the Stars' 지금 내 눈 앞에는 '벌' 없는 육체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잃어버린 청춘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이 자유와 인간이 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감정 표시의 가능성은 이 유치한 쇼에서 더듬어 보고 싶어 꼭 빠져있고 있는 나를 그 누군들 알아주겠는가?  
(사진: 상-최근, 하-청춘)



김순주(취대 95)

### 내 인생의 청춘

마흔을 넘긴 제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이 청춘인가 싶기도 하다가, 청춘이란 단어를 꼼꼼히 꼼꼼히 보게 된다. 청춘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라는 뜻으로 '젊음'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청춘은 젊음 그 자체보다 젊음이 지니는 속성을 일컫는 말 같다. 무모한 도전, 겁없음, 풋풋한 사람, 친구..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른다.

20여년 전,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과 치과병원이 있는 연건 캠퍼스에서 하루의 수업과 병원 실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떠오른다. 창경궁 건너에 있는 돌말길을 따라 친구와 당시 유행가를 같이 따라 부르며 걸었다. 늦은 귀가, 학업에도 지치지 않고 잘 웃고 떠들었다. 시간이 나는 주말에 대학로에 나갔다. 대학로 골목 사이 사이 극장 사이에 연극표를 팔려고 호객 행위를 하던 사람들... 유난히 재치있고 수완 좋은 분에게 공연표를 사서, 소극장에 갔다.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나에게 공연표를 팔았던 그 사

람이 주인공이었다. 시간이 훌쩍 지난 현재, 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와 배우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가끔 예능 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하면, 옛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간다.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주머니에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걱정도 없었다. 시험 끝난 후 친구들과 혼돈을 모아 노래방에 갔던 것, 선배가 사주하면 유난히 더 맛있었던 분식집 라면, 공기밥 추가를 놓고 선배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던 동기들..우습기도 했지만, 뭐하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보니, 현재 나는 청춘을 잃은 지 오래 된 듯하다. 가슴 벅차 웃는 일도, 슬퍼도 우는 일이 거의 없다. 어느새 기성 세대가 되었고 보다. 젊었을 때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정되어 있는 일도 많은데 항상 두려움이 많다. 잃으면 안되는 것들도 있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일들 투성이다. 항상 신중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가 단지 희망차게 느껴지기 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같이 밀려온다. 잘 잘듣는 학생, 모범생 기질의 젊은이가 시간이 흘러 책임감에 눌러 청춘을 이렇게 보내버렸는가 싶다.

청춘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의 젊음' 보다는 '할아버지의 청춘'이 영원할 수 있으리라. 항상 쉬던 숨을 지금 더 깊이 쉬어본다. 나를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주변의 사람과 자연을 더 느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웃고 싶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청춘은 나이 불문 모든 사람의 것이리라.

청춘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조지 버나드 쇼



이현열(법대 57)

### '유학생회 회고'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더니 이제 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정말로 실감난다. 이제 우리 재미 동기들이 내년이면 80세가 되는 것을 계기로 서울에서 모임과 동기들의 문집을 낸다고 하여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다.

Pen을 들자마자 그리운 고등학교 동기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옛날 경희궁이었던 학교가 그림자. 그곳에서 6년을 지냈던 과거가 아련하게 떠오른다. 생동력이 활발하였던 그 어린 학생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니 고등학교때 배운 시조 한편이 떠오른다. "한 손에 막대 잡고"라는 부탁이 지은 시였던 것 같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지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차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새삼 이 시가 마음에 오래오래 머문다. 나도 벌써 미국으로 유학온지 반세기 하고도 5년이 지났고, 대학에서 42년간을 보내고 은퇴한지가 또 6년이 가까워 온다. 이제 나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니 감회가 깊고 과거와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꼼꼼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안 여러보직과 석좌교수로도 임명되어 내 댄에는 성취에 대하여 자부심도 가졌었고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기쁨과 뿌듯한 자부심도 느꼈다. 이제는 은퇴생활을 하며 인생을 좀 더 여유있고 즐겁게 보내려고 애쓰나 가끔 허무감도 느낄 때가 있다. 지난 날 내가 못했던 일에 후회가 날 때도 있다.

"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과 학문을 탐구하지 못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희망을 두고 노력해보려 한다.

1961년 김포비행장에서 동기와 미국유학을 떠난 온 그때를 떠올려 본다. 정부에서 바뀐돈 \$80과 야미시장에서

\$50을 바꾼것까지 \$130을 가지고 연로하신 어머니와 눈물겨운 작별을 하고 Propeller 비행기를 타고 동경, Honolulu, LA를 1박 하는 긴 비행 일정이었다. 여행중 동경 아사쿠사에서 맥주를 마시고 Hawaii에서는 Hula 댄스를 구경하고 LA에서 Hollywood를 구경까지 하고 New York 에 도착할 때는 나의 전 재산이 거의 탕진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New York의 가난한 고학생 생활을 시작한 것이 55년전 이야기다.

미국 대학원 시절에는 일생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았으며 많은 아르바이트도 해 보았다. 젊었을 적 고생은 금을 주고 산다니 지금은 고생했던 시절보다 아름다웠던 기억이 더 떠오른다. 아마 이래서 고생스런 인생을 견뎌 나가는 것 같다.

1961년 New York 에 한국인이 한 수백명 정도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이 유학생이었다. 그 중에도 특히나 가깝게 지냈던 4 명의 친구들과 주말이면 맨해튼에서 맥주와

유학생 중에 남자와 여자 비율이 8:2 정도라 여학생과 데이트 한다는 것이 과히 쉽지가 않았다.

1965년 1월 천신만고 끝에 Dr.Zhivago 영화가 개봉되는 극장의 표를 구하여 사모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관람이 끝난 후 눈이 보송히 내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마차를 타고 사랑을 고백했던 Romance 가 지금도 나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결혼전에 그렇게 불타던 사랑의 정열이 어디갔나? 가끔 마누라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지금은 그렇게 사랑했던 여성이 내 손녀의 할머니가 되어 아직도 나를 예전과 같이 보살피주니 내 일생의 가장 큰 성공이자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아름다웠던 보람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예술 감상을 New York 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학시절 의로움과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 Metropolitan Museum, Guggenheim Museum 등 많은 박물관과 화랑들을 구경하며 다녔으며, 또한 Metropolitan Opera House, Carnegie Hall, Lincoln Center 등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공연을 관람하던 것이 지금도 나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며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훌륭하고 비싼 관람도 예술전공 학생을 위한 Standing 관람표로 싸게 볼 수 있었으며 의자도 없이 서서 봤지만 그런 배려를 한 주최측에 정말 감사함을 느낀다.

Opera 의 Maria Calles, Tabaldi, Domingo, Pavarotti 등의 Aria 는 지금도 Record 로 즐기기도 하며, Ballet of the Nureyev New York City Barryshnikov 등과 Leonard Bernstein 때의 New York Philharmony, 특히 26년의 은둔 생활 후 처음으로 다시 연주회를 가진 Horowitz of the Carnegie Hall Recital 은 내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직도 Classic 음악이나 Ballet 를 즐기지만 주로 지금은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K-POP '등을 더 많이 보게 되며 한국가수중 에일리, 김필, 김바다, 인태경 등을 즐기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나이를 먹으면 다시 어린이가 된다더니 나의 취미가 저조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영화에서도 옛날 동경했던 아름답고 잘 생겼던 배우보다 나이 어린 공주 소녀가 더 아름답다. (논설위원장)





# 지부 소개

# 워싱턴주 Seattle



Mt. Rainier National Park



Skagit Valley Tulip



Boeing Everett B777 Factory



Microsoft Redmond Campus



Amazon's Dome Headquarters



Museum of Pop Culture



Museum of Flight



Starbucks headquarter



Puget Sound



Univ of Washington



### 1. 동창회 설립과 연혁:

워싱턴주 동창회는 1972년에 당시 한심석 서울대학교 총장의 시애틀 방문을 계기로 한만섭, 이동립, 엄도승, 전계상, 김덕환, 김재호 동문을 포함한 창립멤버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략 3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972년 한만섭 박사(공대 49)를 초대회장으로 하여 발족한 이래 2014년 현재 하주홍 동문 (경영대 77)이 32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동창회 임원은 1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지만, 2004년 이후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임기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창회 설립 초기에 대한 정보는 15대 회장 김인배 동문 (수의대 59)이 그리고 현재 동창회 활동에 대한 정보는 회장 하주홍 동문 (경영대 77)이 보내주신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워싱턴주 동창회 역대 회장의 명단과 임기는 아래표에 있습니다.

### 2. Cover 지역:

워싱턴주 전역을 포함하지만 주로 광역 시애틀을 중심으로 Puget Sound지역 (Olympia, Tacoma, Federal Way, Kent, Renton, New Castle, Mercer Island, Seattle, Bellevue, Redmond, Kirkland, Shoreline, Lynnwood, Mukilteo, Everett, Bellingham)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모임 사진:

### 3.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현재 확보된, 연락 가능한 동문 이메일 주소는 약 300개 정도이며, 이 중에서 동창회의 각종 공식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은 평균 50명 수준 (신년하례회 40-50명, 매월 열리는 SNU Forum 세미나에 30-50명 정도, 여름야유회에 60-70명,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50-60명 정도) 입니다.

시애틀에는 정보통신기술 (IT: Information Tech-

nology), 항공우주기술 (ST: Space Technology)과 생명공학기술 (BT: Bio-Medical Technology)과 관련한 첨단기술 기업과 연구소 (Microsoft, Amazon, Google, Facebook, Boeing, Space-X,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Allen Brain Research Institute, Institute for System Biology)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관련업에 종사하는 30-40대 동문이 많이 있으나 그 세대의 동창회 참여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그에 비해 50-70대 동문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4.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사항:

워싱턴 동창회의 연례 행사로는 연초에 신년하례회, 여름에 야유회, 연말에 송년회 겸 정기총회, 그리고 매월 열리는 SNU Forum 세미나가 있으며, 각종 동호회 (골프 동호회, 등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음악 동호회, 사진 동호회)를 통해 소규모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중에서는 골프동호회와 등산동호회가 가장 활발하며, 사진 동호회도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동호회는 역시 서울대 워싱턴 동창회 밴드로서 27대 회장 윤태근 동문 (상대 69)을 Leader로 하여 26대 회장 맹병규 동문 (문리대 70)과 함께 기타를 맡고, 29대 회장 신창범 동문 (법대 73)이 드럼을, 그리고 이승 동문 (자연대 91) 나중에 유성열 동문 (공대 72)이 키보드를 맡아서 'SNUBand'로 창단에 데뷔 리시터를을 가졌으며, 그후 임소문을 타고 다른 대학 동문회 행사에 초청되기도 하며 주가를 높이던 중에 압권으로는 이화여대 미주총동창회 행사에 초청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신년하례회는 한국의 명절인 설날 (구정)에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희망찬 새해를 축하하며 한 해를 계획하는 자리로 대 선배 동문께 세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년하례회때는 외부 장소를 대여하지 않고 회원이 돌아가며 제공하는 자택에서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

서 나누어 먹는 Potluck형식으로 치루는 것이 관례인데, 보통 50-60명 이상되는 참여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집이 필요하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 편이나, 지금까지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전통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모임에서는 전원이 참가하는 부부 단위로 (Back "도" 또는 두번째 "개"가 나오면 오히려 점수를 감하는) 변형 윗놀이 게임을 통해 함께 즐기고, 상품 (최고 및 최하 득점상)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름야유회는 매년 8월 둘째 주말에 경관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주립공원으로 장소를 정해 개최하는데, 동창회 행사중 가장 많은 인원 (평균 60-70명)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음식은 대부분 Potluck 형식으로 준비하되, BBQ는 동창회에서 일괄 준비하고, 특히 최근에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팡치구이를 제공하는데, 이는 주위환경의 제약으로 집에서 마음대로 뽕새나는 생선을 구울 수 없는 관계로 많은 동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기총회겸 송년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말에 호텔이나 연회장을 이용하여 행사를 갖습니다. 정기 총회를 겸하기 때문에 송년회파티 전에 동창회의 년간 활동, 회계 보고 및 동창회 소그룹별 한 해의 활동을 모든 회원에게 보고하며,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 자리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문회의에서 추천한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진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기 총회 후에는 식사와 오락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송년회 파티로 함께 즐깁니다.

### 5. 동문들의 삶의 모습들 (연령 분포, 직업, 취미, 사회봉사, 교육 등)

시애틀의 기후는 춥지 않고 비가 많이오는 겨울과 덥지 않고 화창한 여름을 특징으로 하며 "Evergreen State" 또는 "Emerald City"라는 별명을 가질만큼 나무가 많고, 바다와 산, 호수가 가까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온화한 기후 속에서 자연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면에서도 우수한 자원이 많아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창회에도 은퇴하신 동문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편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본사와 구글, 페이스북의 지사 등 굴지의 IT 회사를 비롯해 보잉, 스타벅스, 코스트코 (Costco)등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업장 외에도, Expedia.com, Real Networks, F5, Nintendo 본사가 위치한 관계로 이 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30, 40대의 젊은 동문들의 비중 역시 다른 지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워싱턴대학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Allen Brain Research Institute, Institute for System Biology 등 생명공학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에서 우리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동창회 차원에서 특별히 주도하지는 않으나, 많은 동문들이 개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과 통합한국학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재훈 동문(공대 72)을 비롯해 여러 동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2세의 교육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시애틀 지부에서 1996년에 김재훈 동문 공대 72)이 창설한 시애틀 지역 KSEA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Microsoft의 후원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며, 임현민 동문 (공대 84)을 비롯하여 동문, 비동문을 막론하고 Microsoft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STEM교육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지역 한인사회의 유일한 상설 의료봉사기관인 코너스톤 의료재단에는 전문의 신창범 (법대73), 변재준 (의대 78) 동문이 주축되어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현 회장 하주홍 동문 (경영대 77)을 포함하여 여러 동문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한인 음악인을 지원하는 음악협회도 김무용 동문 (음대 64)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년에 두 번, 가을 음악회를 개최하며 한인사회를 위한 문화활동에도 여러 동문이 운영과 후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6. 동창회가 설립 후 이제까지 해온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타 지부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SNU Forum: 지금까지 우리 지부의 활동이 동창회 내부 행사로 치중되어, 서울대 동문의 사회적 역할은 동문 개인들에게 맡겨 두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동창회가 해온 일 중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은 지금까지 9년간 꾸준히 지속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무료의료봉사 활동과 동문 회원외에도 일반인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제 한인사회의 교양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SNU Forum이 있습니다. 2008년 28대 회장 김재훈 동문 (공대 72)에 의해 시작된 이 행사는 매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동문간의 친목 향상에 기여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교양, 과학, 생활 지식 등 여러 분야의 주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한인사회를 포함한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어 서울대 동창회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ornerstone Medical Center: 같은 시기 2008년에 서울대 동창회의 지역사회 봉사와 아울러 우리 서울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문의의 신창범 (법대73), 변재준 (의대 78)동문을 중심으로 의대 출신 여러 동문들이 합심하여 시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이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시애틀지역 한인사회의 유일한 상설 의료봉사기관인 코너스톤 의료재단 (Cornerstone Medical Center)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7.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



### 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유는?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주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녹지,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조건으로 미국에서도 늘 살기 좋은 곳 상위에 꼽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소재해 정보통신과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현재도 많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사과, 체리, 복숭아 등 여러 과일의 주산지인 동시에, Chateau St. Michelle Winery 와 Columbia Crest Winery로 유명한 Columbia Valley, Walla Walla 등은 우수한 와인 생산지이기도 함. 또한, 태평양 연안 서북미지역은 임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여 한국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9.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위해 공문화 한 적은 없으나, 좋은 취지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0. 기타,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미주총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회장님 손재욱 동문 (가정 77)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동창회보의 편집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정현 동문 (공대 68)의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편집으로 풍성하고도, 다양하고, 알찬 내용의 회보로 거듭나게 하신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글: 김재훈(공대 72)

### 워싱턴주 동창회 역대 회장 명단

|                   |                   |
|-------------------|-------------------|
| 1 한만섭(1972-1974)  | 18 이양춘(1996)      |
| 2 이동립(1975)       | 19 이대원(1997)      |
| 3 엄도승(1976)       | 20 류광현(1998)      |
| 4 전계상(1977)       | 21 최준환(1999)      |
| 5 이기동(1978)       | 22 양용관(2000)      |
| 6 박한진(1979)       | 23 허운행(2001)      |
| 7 전용상(1980-1981)  | 24 황수택(2002)      |
| 8 김덕환(1982)       | 25 이혜숙(2003)      |
| 9 김재호(1983)       | 26 맹병규(2004-2005) |
| 10 고광선(1985)      | 27 윤태근(2006-2007) |
| 11 최경수(1986)      | 28 김재훈(2008-2009) |
| 12 민병남(1987-1988) | 29 신창범(2010-2011) |
| 13 이철(1989-1988)  | 30 윤석진(2012)      |
| 14 김동호(1991-1992) | 31 김무용(2013)      |
| 15 김인배(1993)      | 32 이원섭(2014-2015) |
| 16 배석연(1994)      | 33 하주홍(2016-현재)   |
| 17 김영일(1995)      |                   |





### 워싱턴주 소개 시니어 포럼

SNU 포럼은 위에 소개한 연례행사 외에 워싱턴 지부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월례행사로서 동문들 간에 친목을 다지면서 동시에 지식과 교양을 높여 가자는 취지로 정치경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취미여행과 관련된 주제로 매월 개최하는 세미나 모임을입니다.

2008년28대 회장 김재훈 동문 (공대 72)이 워싱턴 지부의 가장 웃 어린이신 장석주 동문 (의대 47)의 제안과 이회백 동문 (의대 55)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009년 1월에 Senior Club을 발족시키고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김인배 동문 (수의대 59)이 Senior Club 초대 회장을 맡아 처음 5년간 월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Senior Club의 기반을 훌륭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2014년에 Senior Club 2대 회장으로 김재훈 동문 (공대 72)이 바톤을 이어받아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9년 동안 계속해서 매달 (야유회가 있는 8월과 송년회가 있는 12월을 제외한) 둘째 토요일에 월례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Senior Club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특정한 주제에 대해 미리 준비한 화원의 강연 후에 토론하는 동창회내의 자체적인 세미나 형태였으나, 2014년 김재훈 동문 (공대 72)이 2대 회장을 맡은 이후 외부 전문가를 자주 초빙하고, 참가 대상도 동문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이름 또한 그에 맞게 SNU Forum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지역 한인 신문에 SNU포럼의 일정이 소개되고 행사 내용이 기사화되는 등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교양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SNU포럼에서 다룬 주제들 중에서 작년과 금년에 발표된 (또는 발표예정)인 주제 몇가지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6 세미나 발표자 및 주제:

- 1월: 심재성 박사 (UW): 식물의 생체시계 조절  
유전자 규명-식물은 어떻게 시간을 인지하는가?



- 2월: 서명환 박사 (서울대): 세계 경제의 이해-임계치 (tipping) 현상에 관하여
- 3월: Dr. 윤성욱 (Columbia Dental Group): 현대 치의학의 첨단기술 상황 (State-of-the-Art Dentistry)
- 4월: Dr. 이회백 (전문의):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운 사고Sultana호 vs. 한국의 세월호 해운 사고
- 5월: 이정범 박사 (Boeing 연구소 - 외부강사): 첨단 항공기 Smart Structure and Health Management
- 6월: 김덕호 박사 (UW): 급변하는 창업환경에서 재미미한 일기업자들을 위한 사업화 전략과 예시
- 7월: 정재연 박사 (Microsoft연구소 - 외부강사): 스마트 홈 보안 (Security) 및 개인정보 보호 (Privacy)
- 8월: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9월: Dr. 이명자 (전문의), 이제선 (CEO, Firtech): 100세 시대Probability and Risk Management
- 10월: 이백승 박사 (Bluebird Bio - 외부강사): 유전자의 역할 및 유전자 조작을 통한 암과 질병의 극복
- 11월: 김경혁 박사 (UW): 합성생물학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전망 (2016년 종강 파티 - 김재훈 동문맥)
- 12월: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 2017 세미나 발표예정자 및 주제:

- 1월: 조현식 박사 (서울대 - 외부강사) 한국 무속의 윤리학, 샤머니즘 (Shamanism)에도 윤리가 있는가?
- 2월: 최경욱 박사 (서울시립대 - 외부강사): 2017년 국내외 (한국및 세계) 경제 및 환율 동향과 전망
- 3월: 오승욱 박사 (GMI): 뇌 지도 (Brain Map) 작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뇌연구의 현황과 미래
- 4월: 우상순 박사 (Axio Research - 외부강사): 생명정보과학 (Bioinformatics) 연구현황과 방향
- 5월: 특별Guest (TBD): Journey to Classical Music 해설과 연주
- 6월: 권오석 박사 (TBD): 부동산(주택)시장 일반에 대한 생활정보
- 7월: TBD: 극지연구소와 극한 미생물 연구 소개
- 8월: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9월: TBD: 무인 비행체 드론 (Drone) 개발 현황과 응용
- 10월: TBD: Bill Gates Foundation' s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program
- 11월: TBD: 최근 한국의 정치사회 현상과 위기의 한국경제 (2017년 종강파티 - TBD)
- 12월: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최은관 (상대 64)

### 러시아의 이콘화와 서양화 <하>

러시아는 국민 소득이 낮아서 오랫동안 보통 서민들의 가정에 성경이 없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사제 혼자서 강단에 놓인 큰 성경을 펼쳐서 몇 구절 읽어 주고 신도들은 성경도 찬송가도 없이 예배를 본다. 찬송책이 없어도 신도들은 찬송을 다 외우고 있고, 피아노나 오르간의 반주가 없어도 신도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마치 러시아 군가를 부르듯, 한 목소리로 찬송한다.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은 때문인지 러시아에는 전도 활동이 거의 없고, 신도들의 집이 대체로 성경이 없다. 자연히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않고, 일요일에 신부가 읽어 주는 구절과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러시아는 피터 대제(1682-1725년)의 시절까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터 대제의 시절에도 성경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 피터는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려고 애쓰고 키릴 문자를 간소화시켰다. 신약은 겨우 1820년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콘화는 무지한 서민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듯이 보인다.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러시아의 정교회 는 경제력이 없어 유명한 화가들에게 신식의 그림을 부탁하지 못한 듯하다. 비잔틴 제국에서 유행한 이콘화의 전통을 따라서 러시아 교회는 이콘화를 선호했고, 르네상스 시대에 개발된 근대 화법에 등을 돌렸던 듯하다.

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이콘화는 구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설명한다.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콘화의 시조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였다고 한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가 차츰차츰 일상 생활에 쓰이기 시작했고, 또한 라틴어로 예배를 보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로마 제국은 476년에 붕괴했으며, 교회가 천년이 넘도록 라틴어로 예배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신도들의 대부분은 예배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콘화와 성화는 신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성화의 목적이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나, 기부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교회는 황제와 기부자들이 성화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이콘화는 캔바스를 쓰지 않고 나무 판자 위에 그린다. 주로 쓰이는 나무는 포플라, 버드나무, 피나무였다. 그림 크기에 맞게 판자들을 엮고, 뒷면에는 이 판자들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로로 된 버팀목을 여러개 대어 한다.

나무 그림틀이 무겁기 때문에, 판자에 그런 그림들은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판의 크기는 한 두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이다. 보통은 네모난 화면 모서리의 안쪽을 움푹하게 파서

그림틀 안쪽에 네모난 화판을 표시한다. 물론 그림틀에는 보통,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열심히 화가들은 그림틀로 배정된 여백에 그림을 연장하여 그리기도 한다. 목판에 물감이 부착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소(gesso, 석고가루)를 판자에 먼저 바른다. 접착제를 바른 천(파볼로카)을 목판에 붙여서 화폭을 만든다.

20세기 초에 전등이 발명되기까지, 어두운 성당에서 신자들이 촛불을 켜서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초의 그늘음이 그림 표면에 누적되어 이콘화가 상하기도 하고 더럽게 보이기도 했다. 목은 때를 벗기면, 이콘 바탕에 밝은 노란 색이나 금박이 드러나기도 한다.

유명한 러시아 이콘화들 중에서 앞에서 본 서양화 두 점과 같은 제목의 이콘화 두 점을 살펴 본다.



The Transfiguration (월면산의 변화)



Annunciation (수태 고지)

### ‘새집 (Bird House)’



지재원 (사대 68)

부엌에서 내다보이는 뒷 마당 가까운 곳에, 봄이든 빨강, 진분홍, 연분홍으로 아름답게 꽃피는 철쭉들이 둘러서있는 작은 발이 하나 있다.

어느 봄날, 놀람게도 발 한가운데에 심지도 않은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벗꽃 나무였다. 새나 다람쥐들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나무는 쭉쭉 잘 자라주었고 봄마다 뒷마당을 아름다운 무릉도원으로 변신시켰다. 화려하고 맛있는 분홍의 벗꽃여왕을 중심으로 빨강, 분홍웃음을 입은 철쭉 시녀들이 환상적이었다. 꿀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꿀을 먹는 새(humming bird)가 찾아왔다. 굴러들여온 복덩어리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이런 蜜月の 달콤한 시간은 3-4년이 지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벗꽃나무가 너무나도 빨리 자라면서 철쭉이 받아야할 햇볕을 막을 뿐 아니라, 생존경쟁의 대상자를 죽이기 위해 떨어지는 나무 진으로 철쭉들이 하나 둘씩 고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벗꽃 나무의 기가 너무 센것이 느껴졌다.

아름답지만 독기있는 미녀같은 이 벗꽃나무가 싫어졌다. 나무를 베어버리기에는 줄기가 너무 굵어져 있었기에 나는 전기톱을 사용해 줄기만 베쪽이 남기고 가지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봄이든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던 그 나무의 행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 된 생각이 들었고 발의 모습도 황량해 보였다.

그래서 작은 새 집을 하나 사다가 그 나무에 고정시켜 놓았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는 열 수 없는 작은 새들을 위한 집이었다.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창문으로 새 집을 내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주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래되었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앞마당을 정리하면서 병든 소나무들을 없애기 위해 나뭇군을 불렀다. 불 붙었기 서 있는 이 줄기만 남아있는 벗꽃나무도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새 집까지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뭇군들이 오기로 약속한 바로 전 날에 사다리를 놓고 페러 올라갔다. 페러고 새 집의 앞 문을 열어보니, 아... 예쁜 완두콩 같은 알들이 작은 나무가지와 부드러운 새털 위에 살포시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가냘픈 생명들이 신비스러웠다. 조심스레 그 새집을 떼어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 새 집을 부엌 바로 앞에 있는 데크(Deck) 난간 위에다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

그날 저녁 평소에는 눈에 띄지않던 작은 새 두마리가 그 벗꽃나무 주위를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두려움과 당황함이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들이 옮겨놓은 새 집을 빨리 발

견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발견했다는 증거가 없이 새집은 조용히만 했다. 겨우 2미터 정도 옮겨 놓았는데 발견하지 못한단 말인가.

며칠이 지난 후 이래저래 궁금해진 나는 옮겨놓은 그 새 집으로 살며시 다가가서 새 집의 앞 문을 열어보았다. 아차! 큰 실수를 곧 깨달았다. 앙증맞고 예쁜 작은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짹짹 놀라서 푸르르 날라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못 말리는 판도라의 후에 이 여자는 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후 다시 새 창문을 열어보았다. 알을 품고 있던 새가 놀라서 또 푸드득하며 달아났다. 그리고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알들이 썩고 깨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한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왔다. 죽은 듯이 보이던 세상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듯 비어있던 새 집에 또 다른 새 식구가 깃들었다. 그들의 부리는 꿀을 빨아먹기에 적당하도록 길고 가늘었다. 허밍버드(humming bird) 종류 같았다. 회색에 붉은 색이 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연한 무지개 색이 돌기도 하는 작고 아름다운 새들이었다. 들락 날락, 확확... 새 집을 바로 부엌 창문 밖 앞에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새집에 깃들었다.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 작은 새 한쌍은 매일 매일 나에게 생을 살아가는 용기와 말할 수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주, 아침에 일어나 새 집을 내다 보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켜놓은 새 집의 방향이 비틀어져 있었고, 앞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에 신발을 신은들 마는듯하고 맥으로 뛰어났다. 그동안 새들이 새 집 안에 애써 모아둔 잔가지들이 턱 위에 흩어져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훑시 깨진 알이라도 있나하고 찾았지만 알의 흔적은 없었다. 어제 저녁까지 말짱했었는데... 분명 너구리 아니면 작은 돼지 같이 생긴, 아니 더 못생긴 파썸(possom, 오소리)이라는 놈들의 소행이 분명했다. 그 날 내내 두 마리의 새들이 그 새 집을 서성거리며 몇 번을 날아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빈 집에도 들어가 보며 찾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날 이후로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떠나간 것이었다.

생이란 슬픔은 길고 기쁨은 짧은 것인가... 또 다시 비어있는 새 집이 외로워 보인다.



김수영 (사대 57)

### 어느 노교수의 파안대소

얼마전 최모 대학 동문교수님의 초대로 용궁 식당을 갔다. 3개월 동안 중국 지교회와 선교를 가셨다가 잠깐미국에 가족을 상봉하러 왔다고 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선교 보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알들이 썩고 깨지는 것을 보았다.

뜻밖에도 손자 돌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손님을 초대하셨다. 나는 의외의 일이라 돌 선물 준비를 못 해 빈손으로 오게 되어 당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화기에 애한 가운데 손자 돌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힘든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오셨는데도 피곤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손자가 귀여워 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인 최경만 선교사님은 오래전 자신이 아들 돌잔치 때 직접 쓰셔서 낭송했던 시를 가지고 오셨다. 손자 돌을 축하하기 위해 똑같은 시를 낭송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사모님이 대신 낭송하게 하셨다

시가 구구절절 자식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인이 아닌 신데도 시인 이상으로 잘 쓰셨다. 서울대 사범대 국문과를 졸업하셨으니 글솜씨가 좋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시 '아들이'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 나중에 그 시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여기에 실어 본다.

핍박이 심한 중국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중이라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온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회회낙락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 가운데 피로가 짙 가시고 원기를 회복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시 중국에 들어가셔서 중국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지교회도 박해가 없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생활 속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원고 모집합니다**

특집 주제: **아, 청춘!**

4월에 이어 5월호 특집 주제는 '아, 청춘!'입니다. 젊었기에 가능했던 청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의 말, 한줄의 글, 한권의 책'과 '미국에 와서 배운 교훈' 등 지난 특집 주제의 글도 계속 모집합니다.

회보에 실린 동문들의 글을 읽고나서 평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의 광장'으로 실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원고·시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수필, 시, 독후감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u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견광〉 채소·과일 천연 착즙 주스…3주 섭취 장유익균 증가

채소와 과일을 섞은 천연 착즙 주스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 비만 예방과 변비 개선, 자 신감 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의대 79) 교수, 배제대 심리철학상담학과 최애나 교수 공동연구팀 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2가족을 대상으로 21일 동안 천연주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유익균 은 늘고 유해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미생물의 종류도 증가(5.1%)했다. 조사 대상

은 20~40대 성인 22명과 만 3~5세 유아 22명이다.

성인 참가자들은 케일 240g, 브로콜리 80g, 사과 240g, 레몬 5g을 넣어 만든 천연 착즙주스를 매일 400ml씩 마셨다. 유아들은 당근 55g, 방울토마토 30g, 사과 35g으로 만든 천연 착즙주스를 매일 80ml 씩 마셨다. 주스는 지속적으로 착즙하는 전문 착즙기 구 를 써서 만들었고,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양의 주스를 제공했다. 유아의 경우 공격적 성향이 줄고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짜증과 편 식 문제도 크게 개선됐다



### 마음이 온유한 자들

3월 20일, 아침 햇살이 찬란하다. 산세들의 지절 대는 노랫소리들 도 한결 상큼하기 만 하다. 외진 숲 속 그늘아래 잔설들이 허긋허긋 눈에 들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이 아직한 차갑 다. 그래도 봄은 역시 봄이다. 지난 겨울 별거벗은 벗들이 벌써 그리워진다. 문득 1950년대에 가수 남인수가 불렀던 유행 가 '청춘 고백'의 노랫말이 앙상한 나뭇 가지들 사이를 바람소리처럼 스쳐간다.

헤어지면 그리움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몸살것 이내심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말자 누가먼저 말했든가 아이 생각하면 생각사록 죄많은 내 청춘

인간들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하고 변덕스럽다. 헤어지면 그리워하고 옆에 두면 쉽게 시드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나누는 키스가 아무리 감미롭기로소니 어찌 30분을 넘길 수 있겠는가? 키스는 짙을수록 더 환홍하고 사랑은 짙을수록 더 애절하다.



사람의 맹세라는 것도 그렇다.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허무한 사랑의 맹세다. 인간들은 한 길을 택하는 순간 택하지 못한 다른 한 길을 곧 아쉬워하기 시작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는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낳은 캐릭터 햄릿만의 고민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고민이며 인류역사의 고민이다. ‘이 것이냐 저것이냐.’의 저자인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게오르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죽을 때까지 망설이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죽고말았다.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력기찬 행운아이고 위대한 혁명가인가?

“Whatever you can do, or dream you can, Begin it. Boldness has genius, power and magic in it. -Goethe-

내 책상머리에 걸쳐두고 항상 쳐다보는 괴테의 잔소리가 오늘따라 고맙게 느껴

진다.

그렇다고 변덕스럽고 간사한 인간들의 마음을 순진한 한국 50년 대의 노랫말을 빌려 죄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그건 내탓도, 내탓도 아닌 인간들의 본성인 탐욕 탓이다. 물컵에 반이 채워진 물을 감사함으로 마시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 반쪽을 아쉬워하는 탐욕스런 동물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인간들은 평생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두고 고민 고민하다가 정작 빈손으로 죽어간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고민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적 고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우주 존재계는 옛것들에 대한 추억이나 미련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걱정도 없다. 순간 순간 다가오는 새로운 선물들을 있는 그대로 늘 사랑하며 즐길 뿐이다. 생과死的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상태이다. 울분을 맞으며 문득, ‘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신의 섭리와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시절에는 봄을 맞을 때마다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The waste land)에 나오는 “사월 가장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잡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는 시귀를 읊미하며 엘리엇의 탁월한 통찰력과 감수성에 감탄하곤 했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하는 해맑은 예수의 외침소리였다. 그렇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 그리고 저 사랑의 대지는 마음이 온유한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다.



### 그래도 인간의 본질을 궁구하겠다면...

나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다. 30년 전, 그때도 인문학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진로가 한정되어 있고 취업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배짱이었다. 그때도 시대를 잘 만난(?) 덕에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이, 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 도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

3년 뒤엔 신문사로 옮겼다. 기자가 된 뒤 비로소 전공 선택이 나쁘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역사 공부 방법론은 세상을 읽어내고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문제를 짚어 내고 대안을 찾기 위해 쟁론했던 경험도 큰 자산이었다. 지금까지 대학서 쓸모없는 공부를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가 인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물어오면 쉽게 그렇게 하라고 나설 자신이 없다. 작금의 ‘인문계 취업 대란’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한다.

사실 요즘처럼 인문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때는 없었다. 인문학 속에 길이 있다며 모두가 인문학을 들먹인다. 쏟아져 나오는 책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며, 모모 재벌 회장님이 그랬다며 너도 나도 인문학 공부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도 정작 인문학 전공 젊은이들은 울상이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 최고 명문이라는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조차도 순수 인문계 전공자는 절반도 취업을 못한 다고 한다. ‘인문계 출신 구실 프로그래머’는 “인구론”이라는 신조어는 그런 현실의 처절한 반영이다.

그래도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도를 넘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대목에서 인문학의 본질을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문학, 역사, 철학 등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

다. 고고학, 언어학, 종교학, 미학, 여성학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궁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대중과는 거리가 멀었다. 입과 머리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리더들, 혹은 삶을 고뇌하는 일부 선각자들만 매달렸다. 동시에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양으로 하는 ‘귀족 학문’이었다. 그런 용도는 물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요즘 같은 인문학 대중화는 모순이다. 인문학 전공자의 취업난 또한 예고된 결과다.

이런 인문학의 속성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학과를 만들고 정원만 늘려온 대학은 그래서 가장 먼저 반성해야 한다. 또 인문학이 비실용 학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전공으로 선택한 본인들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은 이들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다. 세태에 영합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당장 연구하고 생산하고 판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를 고를 수밖에 없다. 관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넘렸는데 어떤 기업이 인문학 전공자를 먼저 뽑겠는가.

취업을 위해서라면 요즘 각광받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전공’이나 의학 분야에 도전하면 된다.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 쪽은 도저히 내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굳이 인문학을 전공해야겠다는 대신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거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배고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다. 글 쓴거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인문학도에게 지워진 사명이고 숙명이다.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으로 바뀐다 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실존을 고민하며 인간의 길을 찾아야 하고, 공동체가 나아가 갈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인문학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이래저래 인문학 전공자는 머리가 아프다.



### Princeton Record Exchange

프린스턴은 내가 유학와서 처음 정착한 도시라서 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 곳에 가면 내가 꼭 들르는 가게가 있다. Princeton Record Exchange 라는 자그마한 하얀 건물에 위치한 음반 가게다. 이름 그대로 자신이 들른 음반을 들고 와서 팔 수도 또 살 수도 있는 가게다. 그런데, 이 음반 가게에는 헌 LP가 엄청 많았고, 또 헌 CD도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다. LP는 단돈 1불짜리부터 대부분이 2,3 불 정도면 살 수 있었으니 얼마나 저렴한가? 우연찮게 들렀던 그 곳이 내게는 보물섬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차도 없고 돈도 별로 없던 유학 시절, 학교와 집을 빼면 프린스턴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아닌가 싶다. 그곳에서 Rosa Poselle, Claudia Muzio 같은 전설의 소프라노들을 만났고, Amelia Galli-Curci 나 Lilly Pons 라는 세소리처럼 가벼운 소리의 소프라노들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많은 옛날 가수들의 소리에 심취했고, 그들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세상스레 음악을 듣는 재미에 눈떴다. 내가 우울할 때나 쉬고 싶을 때, 그곳에 가서 오래된 음반들을 뒤적이다 보면 저절로 기분 전환이 되었다. 단돈 10 불로도 LP는 대어섯 장을 살 수 있었으니까, 큰 돈 안들이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었던, 내겐 참 고마운 곳이다.

필라델피아로 오고 나서도 아이들을 낳기 전까진 방향



### [필라델피아 산책 1]

토마스 이킨스(Thomas Eakins, 1844-1916)는 주로 19세기 말에 활동한 미국 사실주의 미술의 거장이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활약했으며 거기서 별세했다. 그가 그린 수백 장의 초상화 그림의 대상도 대부분이 그 도시인들이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예술, 과학, 의학, 종교계의 저명한 인사들이기에 그가 그린 초상화들을 통해 당시 필라델피아 지식인 사회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대형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면도 거칠게 거는 초상화에서 벗어나 사무실, 복도, 강의실, 대형 건물을 장식하는 작품이 되었다.

아버지는 당대 유명했던 서예가였는데 토마스는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 공부해서 12살에는 정교한 펜화를 그렸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과학, 수학, 언어, 미술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필라델피아 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림과 해부학 강의를 들었고 일 년간 제퍼슨 의대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부검 과목을 선택했다. 인체에 대한 과학적 흥미로 인해 외과의가 되고 싶었지만 파리 유학으로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4년간 파리에 머무는 동안 당시 등장한 인상파 미술에 관심을 보이 지 않았고 대신 사실주의 화풍, 특히 정교한 해부학적 그림에 몰두했다. 5개월 동안은 파리 미술학교에서 누드 그림에만 전념했다. 6개월간 스페인에 머물면서 벨라스케스나 리베라 같은 사실파 대가들의 그림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 그는 여러편의 단독 요트 경기 그림을 그렸다. 현대식 운동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당시 도시 생활에만 익숙해 있던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그 후 운동에 관한 그림 대신 빅토리아 식 초상화로 눈을 돌렸는데 1872년에는 ‘케트린’이란 대형 초상화를 그렸다. 희미한 불빛아리 케트린 크로 윌이란 여성이 고양이와 장난하는 그림이었다. 화가와 이 여성은 약혼했지만 5년 후에 그녀는 뇌막염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같이 간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일하는 사람들은 바쁘었고, 취급하는 품목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서는 순간 20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 많은 LP는 현저히 줄었고, 그 자리를 CD와 DVD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classical music 이 있던 자리에는 변함없이 classical music 음반

### 토마스 이킨스의 ‘그로스 클리닉’ (The Gross Clinic)

이킨스는 일생 약 250점의 초상화를 그렸다.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 때 상대방을 약간 미화시키거나 이상화시키 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사실에만 충실한 극사실주의의 화법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은 해부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의 특징을 그림으로 남기려고 했다. 그 인간의 유일한 특징을 타협하지 않고 추구하는 결과였다. 대상으로는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윌트 휘트먼 같은 시인, 물리학자 헨리 롤랜드, 헤이스 대통령, 새뮤얼 그로스나 데이비드 애그뉴 같은 의학계 지도자들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구의 캐톨릭 지도자들이 있다.



들이 있었다.

언제 가냐는 딸아이의 채근을 뒤로 하고 음반 구경을 하다보니 한 시간이 후딱 지났다. 요즘은 음반을 사기 보다는 아이튠즈를 통해 듣거나 유튜브에 가서 듣는 게 대세서인지 clearnce CD는 1불짜리도 많았다. 그 전에는 아무리 clearance 라도 CD는 4불 이하짜리는 없었는데... 또 요즈음엔 복고 바람을 타고 LP 가 인기를 얻어 서인지 오히려 헌 권에 놓인 소량의 LP들이 더 비싼 가격 표를 붙이고 있었다. 심오록 년 사이에 LP와 CD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보니 만물이 돌고 도는 것 같다. 유행이란 게 패션이나 머리 모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나 집,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안 미치지 곳이 없으니 말이다. 또 10여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음악을 듣게 될까? 오랫동안 가지고 싶었지만 절판되어서 구할 수 없었던 Kiri Te Kanawa의 리사이틀을 비롯해서 맘에 드는 CD 몇 장을 사서 오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반을 안 사면 이렇게 싸게 파나 싶어 같은 음악인으로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집에 와서 소꿉백을 보니 since 1980 이라고 쓰여있는 게 눈에 띈다. 10년이면 감성이 변한다는데, 무려 37년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요즘같이 트렌드가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가게들이 많은 세상엔, 학생 때 다니던 가게를 아이 손을 잡고도 갈 수 있다는게, 그리고 아이에게 그 당시의 추억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음반시장은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이 음반 가게만큼은 부디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편집위원)

1875년 이킨스는 다음 해 독립 백주년 기념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그로스 클리닉’(The Gross Clinic)이란 대형 유향을 제작했다. 당시 70 세였던 새뮤얼 그로스 박사는 의료계의 대가로 여러 편의 외과 교과서를 발간했으며 미국 의사협회의 회장도 지낸 인물이다. 가운 대신 정장인 검은 프록코트를 입은 그로스 박사가 백발을 날리면서 제퍼슨 의대 수술실에서 골수염에 걸린 환자의 왼쪽 대퇴골에서 썩은 뼈 부분을 제거하는 도중에 잠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학생들에게 무슨 결과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오른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물은 수술 칼을 쥐고 있고 환자의 어머니는 그림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으면서 차마 아들의 수술을 쳐다보지 못해 한 손을 들어 눈에 가리고 있으며 조수 한명은 수술 과정을 근엄하게 책에 기록한다. 이런 질병이 있으면 그 전까지는 외과의사가 병든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결국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미국 의학계의 위상을 과시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려는 시도였다.

이킨스는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일 년이나 공을 들였다. 이 그림은 이킨스가 그린 그림들 중에 가장 뛰어난 걸작이었으며 미국인들이 이런 지적 성취와 합리성을 극명하게 나타낸 작품이다. 한번 보면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강력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중들은 피비린내 나는 수술실의 현장을 목도하는데 거부감을 느꼈다. 결국 작가가 실망시키며 독립 백주년 기념 전시회에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이킨스의 다른 유향 3점과 수채화 2점이 전시되었다.)

2년 후에 제퍼슨 의대 동창회가 2백 불을 주고 구매하여 대학교에 전시했다. 2006년 동창회 이사회는 이 작품을 6천 8백만 불에 월마트 소유주 가족인 엘리스 윌튼에게 팔기로 했다. 팔린 작품은 아칸소 주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즉시 모금 운동에 나서서 같은 금액을 모금해 그들의 자람이 이 걸작품을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남아있도록 했다.





### 김태준 동문 자서전 '코메리칸의 부모님전상서' 출판

LA 지역의 김태준(사대 59, 사진) 동문이 자서전 '코메리칸의 부모님 전상서'(조광프린팅)를 펴냈다.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접고 7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와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낸 저자의 이야기는 답답하면서도 생생하게 기록된 한편의 중편 소설이다.

"뿔머리에 가난했던 젊은 시절과 이민 초창기 정착사"라는 저자의 설명대로

"30, 40년대 태어난 세대들은 누구나 겪을만한 이야기"가 살아 있는 듯 꿈틀대며 다가선다.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자화상을, 또는 아버지의 삶을 비쳐보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책일 것이다.

저자는 먹고 살기 빠듯했던 일제 강점기 때 경남의 한 두매산골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35년생). 최뿌리와 소나무 곱질로 보릿고개를 넘기며 연명하던 시절과 아버지의 일본 징용, 질병으로 숨



진 동생들, 대동아 전쟁, 6.25를 거치고 한국 산업화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저자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경남도와 서울대를 거쳐 조선일보 기자(63-72)로 일하던 그는 군사독재 체제로부터의 필화를 겪고 두살과 네살 딸들을 처가에 맡겨 두고 돌연 미국 이민길을 택했다.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모아야 했던 주유소 종업원 시절, 이어 주유소 인수, 불법체류의 불안한 생활, 극적인 영주권 취득 후 힘들었던 딸들 초청 등등, 45년 동안 씬없이 뛰어온 그의 이야기가 기자다운 필체로 담담하게 정리됐다. 사우스베이 라이온

스클럽 회장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부모님의 고달픈 삶을 재조명해 명복을 빌어 보려고 일대기를 쓰기 시작했다"면서 "우리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과 그 시대를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값진 기록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특한 우리동문들이 미국에 이민과 대부분 꿈을 이루었겠지만 일부 동문계서는 언어와 인종의 장벽에 막혀 분투하기도 합니다. 허나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튼실한 과실을 거둘 것이란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도 문제는 많긴하지만 현존하는 정치 제도로는 가장 합리적인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자서전 문의는 kimc661@msn.com 또는 (310)780-0131.



이석호(공대 66) 중3 때 하루는 같은 반의 친한 친구 대결이가 와서 등을 좀 보아달라면서 교복 뒷도리틀 걷어 보이는 것이었다. 등 한 곳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부어오른 듯한 곳이 있어 웬일이나고 몰랐더니 한동네 사는 대학 2학년생인 선희 누나(교회성가대 반주자)에게 맞은 자리라는 것이었다.

### 천사가 그린 벽화

나지 못했다.

군을 제대한 후에 몇 년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의 추천으로 미국의 엘에이로 주재원 겸 유학을 왔다. 거기서 다니게 된 어느 한인 교회에서 나는 대결이가 오래전에 그곳에 와서 정착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가운 생각에 대결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반가워하면서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한 병을 사 들고 대결이가 전화로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가서 뺨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백오십 불자리 꼬냐 병을 떨어트릴 뻔 했다. (오역!)

세 살 쯤 되 보이는 사내아이를 옆에 세우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온 여인이 서 있는듯한 번 보고 두번 보고 또 봐도 틀림없이 선희 누나였다. 술에 거나하게 취하자 대결이는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대결이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지내던 어느날 우연히 선희 누나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때도 미혼이더라는 것이었다. 대결이는 자기가 한 악담 탓이라는 자책감이 들어 위로하느라고 몇번 만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렇고 그렇게 됐다"는 "거서기는

뱀"으로 변명인지 해명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그 해 헬로윈 데이에 나는 정성껏 카드를 손수 그려서 보냈다. 선희 누나가 손수 써서 보낸 핑크카드에는 그 카드가 너무 맘에 들어 틀에 넣어서 걸어놓았다는 내용이였다. 그 카드는 옛날 교회 칠판에 어느 무명의 화가가 그려 놓았던 "호박과 문어"를 내가 그림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두 사람의 얼굴을 좀 더 코믹하게 묘사해서 총천연색으로 그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칠판에 그려져 있던 그때의 그림은 아직까지도 누가 그렸는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천사가 와서 그려놓은 그림이 틀림없다고 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결이-선희 부부에게 말해 주었다.



###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리하여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창자를 뒤집어 보여줘야 하나, 나도 너처럼 썼다고  
적당히 시커멓고 적당히 순결하다고  
버티어온 세월의 굵이만큼 마디마디 꼬여 있다고  
그러나 심장 한귀동이는 제법 시퍼렇게 뛰고 있다고  
동맥에서 흐르는 피만큼은 세상 모르게 깨끗하다고  
은근히 힘을 써서 이야기해야 하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나도 충분히 부끄러워 할 줄 안다고  
그때마다 믿어달라고,  
네 손을 내 가슴에 얹어줘야 하나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두 팔과 두 다리는 막아처럼 튼튼하다고  
그처럼 여러번 곱씹은 치욕과,  
치욕 뒤의 입가심 같은 위로와  
자위끝의 허망한 한 모금 니코틴의 깊은 맛을  
어떻게 너에게 말해야 하나  
양치질할 때마다 곡식은 가래를 뱉어낸다고  
상처가 치통처럼, 코막지처럼 몸에 붙어 있다고  
아예 벗어붙이고 보여줘야 하나  
아아 그리하여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아직도 새로 시작할 힘이 있는데  
성한 두팔로 가끔은 널 안을 수 있는데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수필〉

한정민 (농대 87)

일주일애 한번씩 왕복 2시간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상담을 오는 내담자가 있다. 몇년 동안 학교를 자주 빼먹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 고등학생 자녀와 계속되는 불화로 때론 컴퓨터를 던지거나 문이 부서지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됐다고 했다. '언제 정신차리고 변할까? 저 녀석만 변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원망하며 기다리던 중 한국일보에 실린 필자의 칼럼을 읽고 상담 받을 용기를 냈다고 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상담을 하면서 그는 자녀의 보여지는 행동에 화가 나던 것에서 점차 자신의 모습과 부부관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친다며 자주 혼내던 엄한 엄마였다고 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주 7일 일을 했는데 직장의 스트레스가 집에 오면 편한 가족들에게 짜증으로 쏟아졌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담자는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외롭고 힘들었을 아이의 마음을 처음 돌아봤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 '길에게 길을 물으며 걷다'

내가 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명령보다는 부탁하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니 신기하게도 아이가 예전같은 분노 행동 대신 조금씩 마음을 열어 관계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경험 중이다. 참 기적같은 변화이다.

제로 한 표현이다.



"선생님, 저는 한참을 돌아가느라 몇년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상담을 하다보면 지난 세월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낭비였을까? 돌아가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전

그러나 인생이란게 원래 지름길 같은 건 애초 없고 그렇게 구비구비 걷는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아무 것도 비뚤된 것이 없다. 힘들 때 주위를 돌아보면 나만 돌아가고 다른 사람은 탄탄대로 지름길을 가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 내가 별 어려움 없이 살던 그때 누군가는 험한 길을 분투하고 걷고 있었다. 순서와 타이밍이 다를 뿐...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길에게 길을 물으며 오늘을 걷고 있으니 '혹시 돌아가나'라는 걱정과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

도 한다.

때로는 황량하고 쓸쓸한 겨울별판을 지나기도 하겠고, 가끔은 길에 신호등이 가득해서 속도를 줄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작은 도시의 풍경을 만나기도 한다. 어떤 길이 더 나은지 정답은 없다.

우리 주위에는 아무 고생 없이 편하게 산 사람들과 산전수전 겪으면서 성숙하게 익어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인간미와 따뜻함이 느껴지는가? 만났을 때 온화함과 따뜻함이 은은한 향기로 풍기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예외 없이 절망의 계곡과 사막을 걷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짝이고 다듬어지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값진 교훈과 보석같은 삶의 지혜를 선물로 얻는다. 포도가 어두운 통나무 통 안에서 오랜 기간 숙성되어야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로 거듭날 수 있듯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본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 잘한 일보다는 후회되는 일들이 먼저 머리에 스친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데로 그 의미가 있고 그 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눈물을 통해 배운 값진 교훈들이 있었으니 결코 후회란 뭇에 나를 가두지 않으려다. 대신 '그 동안 참 애쓰며 살았구나, 수고 많았어'라고 오늘은 내 어깨를 도닥거리며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싶다.

〈편집위원, 워싱턴가정상담소 소장〉

〈미술〉

### 구름 한 점과 마릴린 먼로 얼굴의 점



김경현(미대 57)

우리는 명도가 높은 코발트색의 청명한 하늘에 구름이 전혀 떠있지 않을 때 '한점의 구름도 없다'는 표현과 무더운 여름철 대낮에 '바람 한점 없다'라는 말을 한다. 점(點, dot, spot)이란 실제로 '구름'이라는 가시적 형태와 '바람'이라는 비가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태양 광구에 존재하며 자기활동을 보여주는 영역인 '태양의 흑점(黑點, black spot)'은 위치와 모양은 있다. 이와 반대로 '점'이란 개념은 평면에서나 공간에서 모양도 위치도 없이 쓰이기도 하는데 '오점(汚點)을 찼다', '원점으로 돌아가다' '정점을 찍다' 등 개념적이며 은유(Metaphor)적인 의미로도 자주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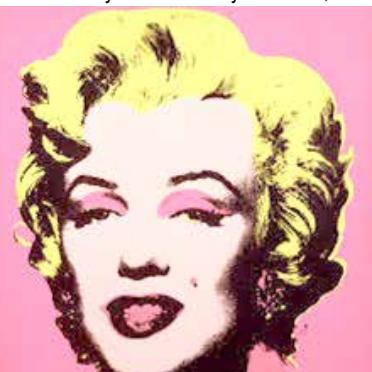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때 위치를 표시하며 넓이와 길이 이를 가지는 않지만 점을 확대해 보면 크고 작은 넓이와 가지가지의 모양도 있으며 또한 삼차원적인 입체감을 갖기도 한다. 캄캄한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쇼인 은하수를 보면 수많은 많은 점들의 별들을 보게 된다. 이들은 하나의 크고 작은 점들의 반짝임이지 넓이와 길이 등을 한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 우주 공간에서 위상으로 내려다 본 한반도의 육지는 단지 하나의 작은 점으로만 보인다.

면 선으로 표현되고 네 개의 점들을 연결하면 여러 모양의 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명암을 준 많은 점들로 표현하면 입체감을 갖는다.

중국 북송(北宋)의 화가인 '미비' 부자의 점묘법(點描法)의 산수화나,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印象主義) 미술가인 쇠라(Georges Seurat, 1859-1891)도 화면에 여러가지 색의 점들을 찍어 많은 작품들을 완성하는 점묘기법(Pointillism)의 작가로도 유명하다.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이라도 어떤 지점에 표시했을 때 시각적인 호기심이 극대화 되기도 하는데 그 좋은 예로서 세계적인 미국의 배우인 '마릴린 먼로' 얼굴 볼에 찍은 작고 검은 점은 큰 매력으로 유명해졌으며 20세기 팝 아트(Pop Arts)의 대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판화 작품에서 그녀의 점 찍은 얼굴이 주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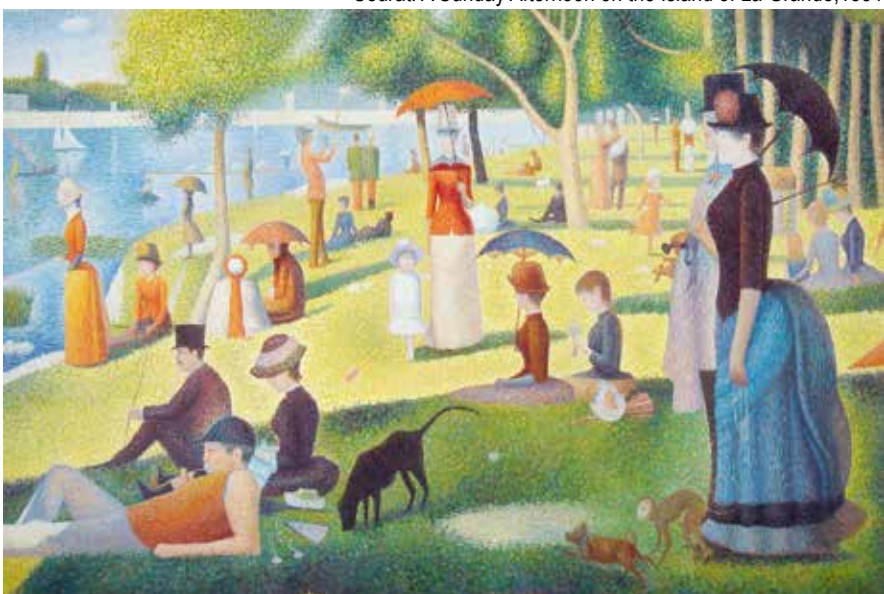
Andy Warhol: Marilyn Monroe, 1967



한편 화중점정(畫龍點睛)이라고 용의 그림에 마지막으 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어 완성한다는 고사도 있으며 특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IT시대에서 website나 email 주소에 점을 찍지 않으면 서로간의 의사소통이나 수 없이 많은 정보도 결코 얻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닷가 해변에 펼쳐져 있는 해수욕장의 모래알들은 '미미한 점'들이지만 서로 모여 뭉치면 없어서는 안 될 쓸모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며 바람에 날리는 보잘것없는 '한 점'으로의 씨앗은 잘 성장해 화려한 꽃과 맛있는 열매를 맺기도 하듯 기록에서도 보잘것없는 겨자씨나 해변가에 쌓여있는 모래알들의 비유로서도 하나의 작은 점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Seurat: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1884







〈건강〉

## 커피와 골다공증

폐경 여성은 커피를 하루 1~2잔(200~400ml) 정도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등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커피를 하루 3잔(600ml) 넘게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박상민(의대 93)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2008~2011년 골밀도 검사를 받은 폐경

여성 4,066명(평균 62.6세)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이 커피를 1~2잔 정도 마시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등 뼈건강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를 하루 1잔 미만(1~199ml 기준) 마신 사람(785명)은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872명)보다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이 21% 정도, 1잔(200ml) 마신 사람(1,421명)은 33% 정도, 2잔(400ml)을 마신 사람(988명)은 36% 정도 적었다.

박 교수는 “커피에 함유된 에스트로겐·클

로겐산(항산화 효과)·디테르펜(항염증 효과) 등 3가지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커피를 3잔 이상 마신 사람들과 비교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커피는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로 치부돼 왔다.

박 교수는 “다른 연구에서 카페인을 하루 330ml 이상, 즉 커피를 하루 3잔(600ml) 이상을 마셔야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만 하루 1~2잔 정도 커피를 마시면 골질을 예방하고 뼈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인 0.7잔으로 뼈 건강을 해칠 수준은 아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



〈영화〉

## 고야의 유령 (Goya's Ghost, 2007)

간만에 좀 진지한 영화를 보려는 분들에게 제가 본 “고야의 유령”을 추천합니다. 아마테우스와 빼꾸기 등지로 날아간 새로 유명한 밀로스 포만감독이 어린시절 읽었던 스페인 종교재판과 고야의 그림들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영화랍니다.

영화 초반에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 유럽전역에서 화제가 된 종교인들을 악마로 묘사한 고야의 판화들을 돌려보며 비판합니다. 당대 유명한 화가였던 고야는 종교인, 왕과 그 가족들, 재력가들의 초상화를 그리던 궁중화가였기에 막강한 카톨릭에서조차 손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스페인은 전통적인 카톨릭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종교재판소는 도전받는 권위를 지키고자 이단을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을 가려내는 방법이 비합리적이었으며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얻어 감금과 처형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고야는 이네스(배우: 나탈리 포트만)라는 한 소녀와 종교인, 로렌조(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의 초상화를 같은 시기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네스는 부유한 상인의 딸로 고야가 그의 그림에서 천사의 얼굴로 표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네스는 식당에서 돼지고기요리를 안먹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그의 조상 중 유대인이 있었으며 돈육을 피한 것이 유대교리를 따르는 증거라며 갖은 고문을 당하고 거짓자백을 하게 돼 투옥당하게 됩니다. 이네스의 아버지 토마스는 고야에게 부탁해 로렌조가 이네스를 만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로렌조는 육정을 참지 못하고 이네스를 겁탈합니다. 토마스는 로렌조와 고야를 집에 초대합니다. 신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떤 고통에도 진실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로렌조의 꾀변을 듣고 가족들은 로렌조를 심문하여 그 자신이 원숭이류에서 진화한 존재라는, 다시말해 가톨릭을 부정하는 자백에 사인을 받습니다. 이 문서는 왕에게 전해지고 카톨릭은 이네스 가족으로부터 막대한 헌금을 받지만 이네스의 유죄판결에는 변함이 없고 종교재판소는 로렌조의 지위를 박탈하고 스페인에서 추방합니다. 20년이 흘러 프랑스 혁



이쯤하여 늙고 귀가 먼 고야는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

온 이네스를 겨우 알아보고 그의 부탁으로 이네스가 감옥에서 낳은 딸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딸인 알라시아(배우: 나탈리포트만, 1인2역)은 일찌감치 수녀원을 탈출하여 거리의 여자로 생계를 이어갑니다.고야는 세력자이자 알라시아의 아버지인 로렌조의 도움을 받으려하지만 로렌조는 프랑스 정권의 핵심인물이 되어 스페인으로 금의환향하여 반종교재판을 열어 카톨릭세력자들에게 중죄를 묻습니다.

참 불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많은 영화입니다. 18세기 후반 화려한 궁중의 삶과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옥의 삶이 대비되며 전정의 참혹함과 스페인 특유의 춤과 음악이 넘치는 환락가, 그리고 아름다운 고야의 초상화들과 시대고발적인 그림들과 드로잉들은 고야의 문제작들을 인터넷에서 다시금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주연배우의 열연이 돋보이며 그들의 재능이 빛나는 영화입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영화 초반에는 아름답고 생기넘치는 순결한 처녀를, 중반부터는 초라하고 병약하고 정신병적인 중년여인과 뇌쇄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장녀를 동시에 연기합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은 초반기 권위적인 종교인, 한갓 육정에 노예가 된 중년,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 세상을 발아래 거느린 세력자, 가족들에겐 헌신적이지만 남들에겐 잔혹한 이율배반적인 인물을 진실되게 연기했습니다. 둘다 다른 작품들로 오스카 주연상을 받아서인지 신들린 연기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에서 고야는 관찰자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의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은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고야는 혼돈의 시대에 민족의식과 탐구 의식을 지녔던 진정한 문화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예술평론가, 마이클 케메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야는 미래를 위해 불합리와 무분별한 흑평에 끝까지 대항하여 현대의 삶과 정의를 바꾸어 놓았다” 라고...



에는 다른 친구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는데.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 프레임(frame)이란 ‘창틀’이란 의미지만,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한다.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 이달의 사진 'Spring at Arvin, California' 박은숙(미대 62)

ExIF: Sony ILCE-7RM2, 1/2500 sec, f 2.8, ISO 100, 90 mm



| 편집 후기  |  |
|--|--|
| <p>말도 많았던 탄핵정국이 일단락되고 이제 한국은 대선이다. 우리 동문들의 대다수가 5-60대 이상이라 그런지 거의 모두가 삶의 철학이 뚜렷한 것 같다. 이거는 이레아 하고, 저거는 저레아 한다, 라는 원칙을 세워 놓고 바꾼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편, 네편이 생기고, 대화와 협력은 사전에나 있는 단어인 것 같다.</p>                                 | <p>우리 동문들은 좀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상을 넓고 멀리 보는 동문들도 많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국내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자유롭다고(liberal)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동문들은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p>             |
| <p>필라델피아에서 동창회보를 2년 전에 시작하며 틀을 과감하게(?) 바꿨다. 처음에는 지면이 이상하다, 폰트가 이상하다, 그냥 전 처럼 하자, 라는 말들이 들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달라진 동창회보가 보기 좋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칭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변해야 한다. 더 나은 회보를 위해, www.snuaa.org 가 우리 미주동창회의 웹</p> | <p>사이트다. 들어가 보면 '가장 popular 한 글들'에 2012년, 5년전 글들이 보인다. 과연 이 글들이 5년동안 다른 글들을 다 제칠만큼 인기있는 글일까? 정체된 것인가? 무엇이 변화를 꺼리게 하는가?</p> <p>'아, 청춘!' 이라는 주제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의 청춘은 어떠셨나요? 들려주세요.</p> <p>편집장 김정현</p>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   |   |  |  |
|---|---|---|--|--|
| 성명 :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 입학연도 :  | 지부 :   |  |
| 주소 :  | 전 주소 :  |   |  |  |
| 업소이름 :  | 업소 주소 :   |   |  |  |
| 전화 :  | Email :   |   |  |  |
| 동창회후원금  | 동창회비(구독료)   | 업소특 광고비   | 일반광고   | 특별후원금  |
| <input type="checkbox"/> 연 \$200<br><input type="checkbox"/> 연 \$500<br><input type="checkbox"/> 연 \$1,000<br><input type="checkbox"/> \$ _____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br><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br>1년: \$75 / 2년: \$150<br><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br><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br>1년: \$240 / 2년: \$480 | *문의: 사무국<br>484-344-5500 Ext 302<br>Email: general@snuaa.org | <input type="checkbox"/> Education (장학금)<br><input type="checkbox"/> Charity (나눔)<br><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br><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   |   |  |  |
|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   |   |  |  |
| Visa ( )    Master ( )    American Express ( )    기타 (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   |   |  |  |
| Card No.:   | Security Code :   |   | Expire Date:   |  |
| Cardholder's Name :   | Date :  |   |  |  |
| Address No. Only  | Zip   |   | Pay to order of 'SNUAA-USA'                                  |  |

## 프레임의 법칙

어느 날 친구끼리 미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냐?” 친구가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께 한 번 여쭙보는 게 어떨겠냐?” 신부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순 없지.” 친구로부터 신부님의 답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쭙 보겠네.” 이번



###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3월 말까지 회비납부 854명 / 총회원 6431명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                |            |            |            |                      |            |            |            |              |              |
|----------------|------------|------------|------------|----------------------|------------|------------|------------|--------------|--------------|
| <b>동창회비:</b>   | 박자경(생활 60) | 이 청(농대 61) | 박서규(법대 60) | 민발식(의대 72)           | 임광록(간호 72) | 표한승(치대 58) | 임이섭(미대 54) | 김용덕(의대 53)   | GA/AL/MS     |
|                | 이철광(상대 60) | 이해영(공대 56) | 부영무(치대 76) | 이근봉(자연 81)           | 임근홍(자연 81) | 이재학(보건 68) | 임현제(의대 59) | 김종호(의대 68)   | 강창석(의대 73)   |
| <b>남가주</b>     | 박종수(수의 58) | 이화성(공대 68) | 손영준(공대 69) | 민병갑(문리 63)           | 민병갑(문리 63) | 이재학(보건 68) | 장세근(의대 57) | 김순옥(의대 54)   | 김순옥(의대 54)   |
| <b>S.CA/NV</b> | 박종식(의대 46) | 이호진(보건 74) | 안병협(공대 58) | 민준기(공대 59)           | 임충섭(미대 60) | 장영자(간호 68) | 장시경(약대 58) | 김영서(상대 54)   | 김영서(상대 54)   |
|                | 김경수(법대 58) | 이희중(농대 63) | 안호삼(문리 58) | 박건이(공대 60)           | 장영자(간호 68) | 김권식(공대 61) | 장윤일(공대 60) | 김용건(문리 48)   | 김용건(문리 48)   |
|                | 강동순(법대 59) | 박창규(약대 59) | 임동규(미대 57) | 오병주(간호 77)           | 박경숙(간호 71) | 김영남(사법 53) | 장재진(공대 80) | 김용자(사대 60)   | 김용자(사대 60)   |
|                | 강정훈(미대 56) | 박취서(약대 60) | 임동호(약대 55) | 은기철(의대 65)           | 박수안(의대 59) | 김영화(문리 65) | 장 흥(문리 61) | 김태형(의대 57)   | 김태형(의대 57)   |
|                | 강중경(공대 48) | 박태호(치대 66) | 임문빈(상대 58) | 원미람(미대 65)           | 박순영(법대 56) | 남세현(공대 67) | 정승규(공대 60) | 남충일(사대 69)   | 남충일(사대 69)   |
|                | 강홍제(상대 53) | 박혜옥(간호 69) | 임진환(치대 68) | 윤진자(미대 60)           | 박승화(간호 69) | 변우진(인문 81) | 조대현(공대 57) | 문학식(농대 81)   | 문학식(간호 63)   |
|                | 강희정(공대 57) | 박희자(음대 68) | 임창희(공대 73) | 이관모(공대 55)           | 박영태(상대 63) | 성국진(치대 87) | 조분희(공대 56) | 손종수(의대 56)   | 손종수(의대 56)   |
|                | 고석규(치대 65) | 방병진(공대 73) | 이민영(문리 61) | 이민영(문리 61)           | 박용태(상대 83) | 송창원(문리 53) | 조병권(공대 64) | 안승덕(상대 51)   | 안승덕(상대 51)   |
|                | 고영순(음대 59) | 배병욱(음대 58) | 장기창(공대 56) | 이창우(문리 72)           | 박진우(상대 77) | 왕규현(의대 56) | 조영철(약대 50) | 오경호(수의 60)   | 오경호(수의 60)   |
|                | 고용규(의대 69) | 배운숙(미대 65) | 장소현(미대 65) | 이현숙(사대 62)           | 박현성(약대 60) | 조규웅(의대 59) | 차대양(공대 55) | 오정환(공대 81)   | 오정환(공대 81)   |
|                | 고재천(공대 57) | 백소진(음대 55) | 장진수(공대 57) | 이홍기(공대 64)           | 박재진(의대 63) | 최기우(의대 63) | 채무일(의대 59) | 유우영(의대 61)   | 유우영(의대 61)   |
|                | 공대홍(공대 65) | 백옥자(음대 71) | 정동주(가정 72) | 장 준(인문 85)           | 임정란(음대 72) | 배병애(간호 47) | 최대한(의대 53) | 유영준(법대 59)   | 유영준(법대 59)   |
|                | 곽용길(문리 59) | 백혜란(미대 70) | 장진성(약대 66) | 정규남(공대 56)           | 정규남(공대 56) | 배상규(의대 61) | 최병두(의대 52) | 이명재(상대 54)   | 이명재(상대 54)   |
|                | 권기상(경영 72) | 변영근(수의 52) | 장성욱(사대 52) | 정지선(상대 58)           | 변건용(공대 65) | 주광모(공대 68) | 최해숙(의대 53) | 임수안(공대 62)   | 임수안(공대 62)   |
|                | 권영택(문리 50) | 서동영(사대 60) | 정진수(공대 57) | 정진수(공대 57)           | 서경애(음대 67) | 차국민(상대 56) | 최희수(의대 67) | 김양수(의대 60)   | 김양수(의대 60)   |
|                | 권영재(의대 )   | 서동영(사대 60) | 정동주(가정 72) | 최경선(농대 65)           | 서경애(음대 67) | 최기우(의대 54) | 최계윤(의대 57) | 정인태(의대 58)   | 정인태(의대 58)   |
|                | 권처균(공대 51) | 서치원(공대 69) | 정성진(상대 59) | 홍병익(공대 68)           | 서상철(의대 50) | 최수강(의대 71) | 한경진(상대 59) | 정일화(상대 55)   | 정일화(상대 55)   |
|                | 김건진(문리 62) | 선우원근(공 66) | 정연웅(상대 63) | 황동하(의대 65)           | 서정웅(약대 63) | 최영태(문리 67) | 한의일(공대 62) | 신구홍(공대 59)   | 신구홍(공대 59)   |
|                | 김경수(치대 58) | 신낙호(치대 63) | 정예원(상대 63) | 황만익(사대 69)           | 서정웅(약대 63) | 최영태(문리 67) | 한재은(의대 59) | 최우백(공대 76)   | 최우백(공대 76)   |
|                | 김경수(간호 68) | 성주경(상대 68) | 정임현(문리 66) | 정임현(문리 66)           | 성기로(의대 57) | 최환용(농대 58) | 안승건(문리 55) | 최종진(의대 63)   | 최종진(의대 63)   |
|                | 김광은(음대 56) | 손기용(의대 55) | 정재화(상대 59) | 정재화(상대 59)           | 손갑수(약대 59) | 최현무(법대 60)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교복(농대 63) | 손선형(간호 69) | 정재훈(공대 64) | 정재훈(공대 6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규현(법대 53) | 손영아(음대 85) | 정철룡(의대 55) | 정철룡(의대 55)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기태(의대 52) | 손학식(공대 61) | 정태무(사대 44) | 정태무(사대 4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기형(상대 75) | 정현진(간호 68) | 정현진(간호 68) | 정현진(간호 68)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동산(법대 59) | 신상하(공대 58) | 신상하(공대 58) | 신상하(공대 58)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동식(음대 64) | 신영찬(의대 63) | 정 활(공대 64) | 정 활(공대 6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동환(문리 61) | 신정식(상대 64) | 제영혜(가정 71) | 제영혜(가정 71)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병연(공대 68) | 신정연(미대 61) | 조동준(의대 57) | 조동준(의대 5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병연(공대 68) | 신상은(상대 54) | 조민국(상대 58) | 조민국(상대 58)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석우(농대 58) | 안병일(의대 63) | 조상하(치대 64) | 조상하(치대 6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석훈(법대 59) | 양승문(공대 65) | 조재국(농대 67) | 조재국(농대 6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신기(법대 59) | 양운택(의대 58) | 김경애(간호 54) | 김경애(간호 5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성복(공대 59) | 양창호(상대 54) | 조정식(공대 60) | 조정식(공대 60)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성욱(간호 81) | 양대준(상대 56) | 조중자(간호 61) | 조중자(간호 61)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성환(의대 65) | 염동해(상대 74) | 김정현(상대 65) | 김정현(상대 65)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수영(사법 57) | 오선웅(의대 63) | 지인수(상대 59) | 지인수(상대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순길(법대 54) | 오송자(사대 59) | 최정환(사대 54) | 최정환(사대 5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순태(간호 61) | 오양숙(간호 60) | 최정환(공대 60) | 최정환(공대 60)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순자(치대 67) | 우준식(상대 61) | 최태순(간호 59) | 최태순(간호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 영(수의 53) | 위정민(공대 64) | 최복성(의대 56) | 최복성(의대 56)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영덕(법대 58) | 유덕훈(상대 48) | 최영순(간호 69) | 최영순(간호 6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영희(사법 56) | 유석홍(상대 61) | 최완원(공대 57) | 최완원(공대 5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용재(의대 60) | 유익영(문리 56) | 최재용(문리 54) | 최재용(문리 5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원경(약대 59) | 유재환(상대 67) | 최종권(문리 59) | 최종권(문리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인중(농대 74) | 유진형(상대 )   | 최 철(의대 )   | 최 철(의대 )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일영(의대 65) | 육태식(의대 61) | 하기환(공대 66) | 하기환(공대 66)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재중(치대 62) | 윤경민(법대 55) | 한규희(미대 68) | 한규희(미대 68)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재광(음대 64) | 윤석철(상대 60) | 한근배(공대 65) | 한근배(공대 65)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재호(간호 69) | 윤용길(공대 55) | 한정진(의대 55) | 한정진(의대 55)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중태(상대 58) | 윤태자(미대 62) | 한홍철(치대 62) | 한홍철(치대 62)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중표(법대 58) | 이근일(의대 62) | 한홍철(공대 60) | 한홍철(공대 60)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준일(공대 62) | 이 관(공대 55) | 한효동(공대 58) | 한효동(공대 58)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창무(음대 53) | 이광재(공대 59) | 허영진(문리 )   | 허영진(문리 )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태윤(법대 53) | 이규남(의대 62) | 한기웅(문리 44) | 한기웅(문리 4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택수(의대 57) | 이근용(의대 61) | 홍선례(음대 70) | 홍선례(음대 70)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홍복(문리 66) | 이기재(사대 52) | 홍선진(약대 72) | 홍선진(약대 72)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희자(간호 64) | 이명선(상대 58) | 홍수웅(의대 59) | 홍수웅(의대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희재(사대 63) | 이미정(의대 78) | 홍순택(사대 59) | 홍순택(사대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김희정(공대 63) | 이방기(농대 59) |            |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나두섭(의대 66) | 이병식(공대 61) |            |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나민주(음대 65) | 이병준(상대 55) | <b>북가주</b> | <b>SAN FRANCISCO</b>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나승욱(문리 59) | 이서희(법대 70) | 강석식(의대 61) | 강석식(의대 61)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나정자(간호 70) | 이성숙(공대 56) | 강재호(상대 57) | 강재호(상대 5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노병호(공대 61) | 이소희(의대 61) | 강정수(문리 61) | 강정수(문리 61)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문덕수(공대 73) | 이영일(문리 53) | 공순화(사법 56) | 공순화(사법 56)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문병길(문리 61) | 이원익(문리 73) | 권오형(사대 61) | 권오형(사대 61)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문인일(공대 61) | 이원택(의대 65) | 김병환(문리 67) | 김병환(문리 6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민병동(문리 58) | 이정길(치대 63) | 김병호(상대 57) | 김병호(상대 5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민수봉(상대 55) | 이재권(법대 56) | 김상온(약대 59) | 김상온(약대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대균(수의 57) | 이재홍(공대 71) | 김영준(수의 64) | 김영준(수의 6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부강(사대 64) | 김영준(상대 58) | 김영준(의대 54) | 김영준(의대 5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성욱(상대 58) | 이정근(사대 60) | 김정복(사법 55) | 김정복(사법 55)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영희(음대 66) | 이정화(공대 52) | 김정희(음대 56) | 김정희(음대 56)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우성(상대 77) | 이정희(공대 55) | 김현왕(공대 64) | 김현왕(공대 64)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원준(공대 53) | 이종도(공대 66) | 남승채(공대 66) | 남승채(공대 66)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은숙(미대 62) | 이종무(간호 69) | 노분희(사대 59) | 노분희(사대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인수(농대 64) | 이준호(상대 65) | 노상규(공대 59) | 노상규(공대 59)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인정(농대 65) | 이중희(공대 53) | 민병근(공대 65) | 민병근(공대 65)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일우(의대 70) | 이창무(의대 54) | 맹광호(문리 47) | 맹광호(문리 47)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박일하(치대 56) | 이재진(문리 55) | 박노면(사대 50) | 박노면(사대 50)           | 손경호(사대 50) | 최영태(문리 67) |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한 안태민(공대 62) |

|  |            |            |            |            |            |            |
|--|------------|------------|------------|------------|------------|------------|
|  | 민발식(의대 72) | 임광록(간호 72) | 표한승(치대 58) | 임이섭(미대 54) | 김용덕(의대 53) | GA/AL/MS   |
|  | 임근봉(자연 81) | 임근홍(자연 81) | 이재학(보건 68) | 장세근(의대 57) | 김순옥(의대 54) | 김순옥(의대 54) |
|  | 장영자(간호 68) | 김권식(공대 61) | 장윤일(공대 60) | 김용건(문리 48) | 김용건(문리 48) | 김용건(문리 48) |
|  | 장화자(간호 60) | 김영남(사법 53) | 장재진(공대 80) | 김용자(사대 60) | 김용자(사대 60) | 김용자(사대 60) |
|  | 전병삼(약대 54) | 김영화(문리 65) | 장 흥(문리 61) | 김태형(의대 57) | 김태형(의대 57) | 김태형(의대 57) |
|  | 전성진(사대 58) | 남세현(공대 67) | 정승규(공대 60) | 남충일(사대 69) | 남충일(사대 69) | 남충일(사대 69) |
|  | 전재우(공대 61) | 변우진(인문 81) | 조대현(공대 57) | 문학식(농대 81) |            |            |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홍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택(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MD · VA ·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301)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i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항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외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Thank you
53명 종신이사 현재 (\$3000이상)
김중권 (의대 63)
심상은 (상대 54)
이병준 (상대 55)
오홍조 (치대 56)
이세열 (사대 57)
박종수 (수의 58)
서동영 (사대 60)
전희택 (의대 60)
임낙균 (약대 64)
한홍택 (공대 60)
노명호 (공대 61)
이종도 (공대 66)
제영혜 (가정 71)
서치원 (공대 69)
방명진 (공대 73)
이청광 (상대 61)
임용오 (의대 57)
이홍표 (의대 58)
조용원 (문리 66)
\* 오인석 (법대 58)
윤정욱 (약대 50)
이전구 (농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재덕 (법대 60)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방은호 (약대 43)
박윤수 (문리 48)
강연식 (사대 58)
이교락 (의대 53)
조흥준 (문리 62)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서중민 (공대 64)
박태우 (공대 64)
강영빈 (문리 58)
조시호 (문리 59)
이상강 (의대 70)
오인환 (문리 63)
김재영 (농대 62)
손재옥 (가정 77)
김명자 (문리 62)
오세경 (약대 61)
권기현 (사대 59)
고일석 (보건 69)
오재민 (치대 33)
박경민 (의대 53)
남상용 (공대 52)
서영석 (의대 55)
한귀희 (미대 68)
(\* 한원 이상 내신분)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해(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신희(공)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회진(음) 사업국장 | 한중희(공)  
조직국장 | 백옥재(음) 삽외국장 | 박형준(공)  
재무국장 | 이상숙(가정)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사무장 | 서경희  
(Webmaster)

**회보 : 발행인 손재욱(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회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  
황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김태연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택(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 지역                        | 이름   | 연락처         | Email        | 회계연도                    |          |
|---------------------------|------|-------------|--------------|-------------------------|----------|
| 남가주<br>S.CA/NV            | 회장   | 성주경(상대 68)  | 213,500,7977 | jksung@skcinsurance.com | Feb-Jan  |
|                           | 차기회장 | 강신용(상대 73)  | 213,380,3801 | gamkocpa@hotmail.com    |          |
| 북가주<br>SAN FRANCISCO      | 회장   | 임희태(간호 73)  | 831,818,2959 | acuheere@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뉴욕<br>NY/NJ/CT            | 회장   | 김도명(농대 70)  | 917,207,5949 | dmkim516@gmail.com      | July-Jun |
|                           | 차기회장 | 이대영(문리 64)  | 516,770,0070 | dylidy88@hotmail.com    |          |
| 뉴잉글랜드<br>MA/RI/NH/ME/VT   | 회장   | 정태영(문리 71)  | 978,908,0196 | chungty1@snu.ac.kr      | Jul-Jun  |
|                           | 차기회장 | 박영철(농대 64)  | 781,674,2498 | youngpark6@yahoo.com    |          |
| 달라스<br>LA/DALLAS          | 회장   | 이석호(농대 78)  | 214,244,3630 | iseeko@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텍사스<br>MT/CO/WY/NM        | 회장   | 최용운(공대 77)  | 480,207,9992 | ymcgreencorp@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미네소타<br>MINNESOTA         | 회장   | 황효숙(상대 65)  | 651,308,0796 | sook@nano-dyne.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샌디에고<br>SAN DIEGO         | 회장   | 이정석 (공대 87) | 858,243,3254 | jslee029@gmail.com      | Nov-Oct  |
|                           | 차기회장 |             |              |                         |          |
| 시카고<br>IL/IN/WI/MI        | 회장   | 한경진(상대 59)  | 847,858,7556 | jimkhahn@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애리조나<br>ARIZONA           | 회장   | 오윤환(공대 56)  | 520,271,2601 | youn_oh@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앨라스카<br>ALASKA            | 회장   | 윤재중(농대 55)  | 907,223,0887 | jaeyoon@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오레곤<br>OR/ID              | 회장   | 백대현(상대 77)  | 503,587,0447 | daehyunbaek@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오하이오<br>OHIO              | 회장   | 이상우(상대 72)  | 614,370,5761 | rimshake@ameritech.net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워싱턴 DC<br>DC/MD/VA/WV     | 회장   | 안선미(농대 65)  | 347,776,0304 | sunmi_ahn@yahoo.com     | Jul-Jun  |
|                           | 차기회장 | 정세근(자연 82)  | 703,785,8467 | saekewn@gmail.com       |          |
| 워싱턴주<br>WASHINGTON        | 회장   | 하주홍(경영 77)  | 402,631,3567 | jh_ha@live.com          | Jan-Dec  |
|                           | 차기회장 | 임한민(공대 84)  | 425,444,3899 | mmsft@hotmail.com       |          |
| 유타<br>UTAH                | 회장   | 김한섭(공대 93)  | 734,904,9672 | hansup@ece.utah.edu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조지아<br>GA/AL/MS           | 회장   | 주지영(문리 66)  | 706,338,4520 | jane.chu.ga@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공영식(사대 79)  | 770,880,5816 | youngskong@yahoo.com    |          |
| 중부텍사스<br>MID-TEXAS        | 회장   | 김성근(법대 78)  | 512,750,4680 | hi5chris@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필라델피아<br>PA/DE/S.NJ       | 회장   | 최정웅(공대 64)  | 484-467-7609 | jungwoongchoi@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박혜린(음대 84)  | 215-499-0320 | helen4music@hotmail.com |          |
| 플로리다<br>FLORIDA           | 회장   | 조동건(공대 69)  | 561,213,8228 | dcho0806@bellsouth.net  | Jul-Jun  |
|                           | 차기회장 | 정치영(법대)     |              |                         |          |
| 캐롤라이나<br>SC/NC/KY         | 회장   | 지원식( )      | 919-913-5570 | wschee@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테네시<br>TENNESSEE          | 회장   | 김상호(공대 86)  | 856-386-1094 | kimsh@oral.gov          | Jan-Dec  |
|                           | 부회장  |             |              |                         |          |
| 하와이<br>HAWAII             | 회장   | 성낙길(문리 77)  | 808,956,2611 | nsung@hawaii.edu        | Jul-Jun  |
|                           | 총무   | 전수진(식공 89)  | 808,956,8283 | soojin@hawaii.edu       |          |
| 하틀랜드<br>IA/MO/KS/NE/AR/OK | 회장   | 김제권(사대 68)  | 918,810,6393 | jaykwonkim@hotmail.com  | Sept-Aug |
|                           | 차기회장 |             |              |                         |          |
| 휴스턴<br>HOUSTON            | 회장   | 구자동(상대 70)  | 713,206,1942 | kykey2003@yahoo.com     | Jan-Dec  |
|                           | 부회장  |             |              |                         |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이명규(농대 69)  | 778,378,7339 | nycmikelee@gmail.com    | Jan-Dec  |
|                           | 부회장  | 김중욱(공대 70)  | 604,524,0101 |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정중기(공대 70)  | 403,617,7585 | movics@shaw.ca          | Mar-Feb  |
|                           | 부회장  |             |              |                         |          |

Law offices of E. Peter Shin, ESQ.

# 신응남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무료상담 환영  
24시간 연락  
무료 주차장



여러분의 골치아픈 법률문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만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한국 대기업의 뉴욕지사에서 각종 소송사건을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실력있는 변호사 (뉴욕, 뉴저지 & 미연방법원자격소지)

**파산(개인·회사)전문/ 모기지,부채조정/ 각종 민사 소송/방어/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

**718-463-3131 (201)941-7969** Fax:(718)463-6789  
Email: petershinesq@gmail.com  
뉴욕(플러싱):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뉴저지: 12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농대 70)

jayone.com

##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Paper Russells

#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77)

WWW.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INFO@PAPERRUSSELLS.COM F. 801.479.4663

서울대 동문 10% 할인



후자이긴  
아까운 당신

# 기회환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 Durable, Efficient, Beautiful

- Digital Technologies & High-tech Monitor System
-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Saving Design
- Nationwide 18 Branches & Warehouses
- Company Operated Service Network
- 3 Year Labor & Parts Warranty



# 18<sup>th</sup> Anniversary

창업 18주년을 맞이하는 터보에어 그룹은 세계적인 상업용 냉장고 생산업체로서

미 전역 18개 지사 및 물류창고, 7개의 계열사를 운영 중이며

미국, 한국, 중국에 위치한 5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세계 5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Dallas, TX 에 26 Acre 부지의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던 터보에어는

지난해 Long Beach, CA 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6만 Sq.Ft. 규모의 초현대식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보다 편리한 위치와 최신식 건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New Headquarters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oll Free : 800-627-0032  
www.turboairinc.com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C)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